

<2027년 수능 대비>

2027 수능 특강 동아시아사 중요 개념 빈칸 정리

목표를 향해서 ...



[_____]님의 꿈과 목표를 응원합니다!!

MEMO

I 3 선사 문화

01.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랴오통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랴오허강 유역의 ❶□□ 문화 : 채도(원통형 토기), 용 모양 옥기, 여신의 얼굴상
중원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허강 중류 ❷□□□ 문화 : 토기 표면에 무늬를 넣은 ❸□□ 제작 황허강 하류 ❹□□□□ 문화 : 홍도·회도·흑도·백도, 세 발 달린 토기와 동물 모양 토기 양사오 문화 + 다윈커우 문화 → ❺□□(흑도) 문화 창장강 하류 ❻□□□ 문화 : ❼□□□를 기반으로 발달, 흑도·홍도, 량주(옥기 등) 문화로 발전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❽□□□□ 토기 등 제작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❾□□ 토기, 여성 모양의 토우, 농경보다는 수렵·어로·채집 생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 □□ 토기
 랴오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여신의 얼굴상
 눈을 청옥으로 만들어 넣은 것이 특징이다.

▲ 용 모양 옥기
 용을 형상화한 옥기가 제작되었다.

▲ □□ 토기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 □□ 토기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한 □□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물고기 무늬 등이 그려져 있다.

▲ □□ 토기
 황허강 하류 유역에서 발달한 □□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 문화에서는 초기에 홍도가 만들어졌으나 중기 이후 회도, 흑도가 늘어났다.

▲ 돼지 그림 토기
 창장강 하류 유역의 □□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당시 사람들이 돼지 등을 가축으로 길렀음을 알 수 있다.

▲ □□ 토기
 □□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의 토우



시명감 충만!!

I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01. 청동기 문화의 발전

① □ □ 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 초원 및 삼림 지대에서 발달 • 청동 무기, 재갈이나 등자 등의 마구, 사슴돌과 판석묘 등을 남김
중원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 □ □ □ 문화 :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 ③ □ □ □ □ 등 제작 → 초기 국가 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 • 상 왕조 : 청동제 무기와 제기 제작
만주 ·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전 2000년경~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등장 • 비파형 동검, 청동 거울, 반달 돌칼, 고인돌 등을 남김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로부터 벼농사 기술, 청동기, 철기 수용 → ④ □ □ □ □ 문화 시작 • 종 모양 청동기(⑤ □ □ □) 등 청동 제기와 장신구, 철제 농기구와 무기 제작

●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 사슴돌 ▲ 판석묘

□ □ 초원의 사슴돌과 판석묘이다. 사슴돌은 초원 지대에 세워진 거석 기념물로, 표면에 사슴 등이 새겨져 있다. 판석묘는 시신을 안치하고, 주변에 여러 장의 판석을 세운 것이다.

▲ 야요이 토기 ▲ □ □ □ □

야요이 문화의 대표적 유물인 야요이 토기와 종 모양 청동기(□ □ □ □)이다. 종 모양 청동기는 주술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청동 술잔 ▲ □ □ 의 네발 솥

□ □ □ □ 문화의 유물인 청동 술잔과 □ □ □ □ 의 네발 솥은 주로 제사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비파형 동검 ▲ 고인돌

청동으로 제작된 비파형 동검과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이다.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알려 주는 문화유산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주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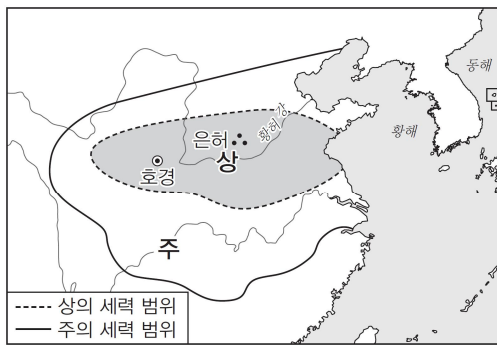
02. 국가의 등장

중국 초기 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용한 정복 활동 • 하(夏) : 기원전 2,000년경 ⑥ □ □ □ □ 중류 지역에서 성립, 문헌상 최초의 왕조 • 상(商) : 기원전 1600년경 성립, 신정 정치, ⑦ □ □ □ □ 사용, 은허 유적 • 주(周) : 기원전 1046년경 상을 멸망시키고 호경(鎬京)을 수도로 삼음 : 혈연에 따른 종법적 ⑧ □ □ □ □(왕이 수도와 직할지 통치, 제후가 지방 통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강조 : 왕과 제후 사이의 혈연관계가 희미해지면서 왕실 권위 약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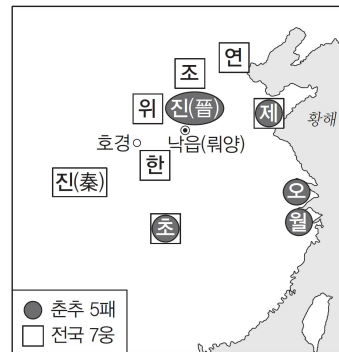
춘추 전국 시대

- 춘추 시대
 - : 기원전 770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 서북방 유목 세력인 ㉞□□의 침입 → 주가 호경에서 낙읍으로 천도 → 주 왕실의 통제력 약화 → 춘추 5패가 정국 주도(존왕양이)
- 전국 시대
 - : 기원전 403년 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 질서 붕괴 → 전국 7웅 대두(약육강식) → ㉞□□ 등 법가 사상가를 등용하여 부국강병책을 추진한 진(秦)에 의해 통일
- 춘추 전국 시대의 변화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㉞□□□ 도입 :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각각 군수와 현령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 •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국강병책(변법) 실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경과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 발전 •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 유통 활발, 도시 발달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 중시 풍조에 따라 ㉞□□□□ 등장 • 철제 무기가 보급되면서 전쟁의 규모 확대, 전쟁의 양상 변화



▲ 상과 주의 세력 범위



▲ 춘추 전국 시대

진(秦)

- 진시황제
 - :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전국 통일(기원전 221)
 - : 중앙 집권 체제 강화(최초로 황제 칭호 사용, 전국적으로 ㉞□□□ 실시, 3공 9경의 관료제 시행)
 - : 도량형·화폐·문자 통일, 도로망 정비, 사상 통제(㉞□□□□)
- 쇠퇴
 - : 만리장성 축조 등 대규모 토목 공사와 가혹한 법치에 대한 불만 → 진시황제 사후 진승·오광의 난 등 농민 봉기 발생

요, 순 등이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의 시황제는 시호 짓는 법을 없애며 이르기를, “시호를 짓는 것은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행적을 논하며, 신하로서 군주를 의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행적을 비난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자신더러 성인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덕(德)은 삼황(三皇)을 겸하고 공(功)은 오제(五帝)보다 더하다.”라고 하며 마침내 칭호를 고쳐 황제라고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성인이라고 한 것이다. - 『통감절요』 -

한(漢)

- ㉞□□(유방, 재위 기원전 202~기원전 195)
 - : 진 멸망 이후 초의 항우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 재통일(기원전 202), ㉞□□□(군현제 + 봉건제)
- ㉞□□(유철, 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
 - : 제후의 세력을 억제하고 군현 확대, 흉노 원정을 위해 월지에 ㉞□□ 파견(기원전 139)
 - : 소금·철 등의 ㉞□□□ 실시, 상공업 통제
 - : ㉞□□□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중시
- 왕망의 황위 찬탈
 - : 외척 출신으로 (전)한을 무너뜨리고 ㉞□□(新) 건국 → 토지 국유화 등 급진적 개혁 단행 → 실패
- 후한(25~220)
 - : 신이 멸망한 후 호족의 지원으로 광무제(유수)가 건국(도읍 ㉞□□)
 - : 외척과 환관의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멸망 → 위·촉·오가 대립하는 삼국 시대 전개

흉노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 기원전 4세기 무렵 유라시아 북부의 초원 지대에서 성장 발전 : ㉓□□ □□가 동호를 정복하고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냄 →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 지대 통합 정치 :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 형성 → 선우 아래 ㉔□□□□과 우현왕 등을 둠
고조선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립 :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 제정일치 발전 : 상·경·대부·장군 등의 관직 설치, ㉕□□의 법 제정,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연과 대립 ㉖□□의 집권 : 한 초기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 →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기원전 ㉗□□□)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영
만주·한반도의 여러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여 : 만주의 송화강 유역에서 성립 고구려 : ㉘□□의 일부 세력이 남하하여 압록강 유역에서 건국 삼한 : 마한·진한·변한 성립, 농경 발달, 제정 분리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 전후 ㉙□□□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정치체 등장 3세기경 30여 개의 소국이 히미코 여왕의 ㉚□□□□□을 중심으로 연맹체 형성

03. 중원 왕조와 주변 국가와의 관계

흉노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시황제 : 흉노를 초원으로 몰아내고 오르도스 지방 탈환 → 흉노의 재침을 막기 위해 ㉛□□□□ 축조 한 고조 : 평성 ㉜□□□ 전투에서 묵특 선우에 패배(기원전 200) → 흉노에 공물과 공주를 보내 화친(기원전 198) 한 ㉝□□ : 흉노에 대항할 동맹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 : 대대적인 원정으로 흉노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몰아냄
베트남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둥·광시 지역을 중심으로 남비엣(남월) 건국(찌에우다, 기원전 203) 한 ㉞□□ : 남비엣 정복(기원전 111) → 9군 설치
만주·한반도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조선이 한과 한반도 남부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성 한 무제 : 고조선과 ㉟□□의 연합을 막기 위해 고조선 정복(기원전 108) → 4군 설치
일본 열도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7년 왜의 노국왕이 후한 ㊱□□□에게 조공하고 '한위노국왕'이라고 새겨진 금인을 받음 239년 아마타이국의 ㊲□□□ 여왕이 위(魏)에 조공하고 '친위왜왕'이라는 칭호를 받음

●한 ㉝□□의 대외 정책

황제께서 중국이 피폐하여 평안한 나날이 없음을 슬프게 생각하시고 비로소 대장군, 표기장군, 복파장군, 누선장군을 파견하여 남으로 백월을 멸망시켜 일곱 군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북쪽으로 흉노를 물리쳐 혼야왕 10만의 무리를 항복시키고 다섯 개의 속국을 설치하고 …… 동으로 고조선을 정벌하시고 현도와 낙랑군을 세우시어 흉노의 왼쪽 팔을 자르셨습니다. 또한 서쪽으로 대만을 격파하여 서른여섯 나라를 겸병하시고, 오손과 손을 잡아 둔황, 주취안, 장예의 세 군을 설치하시어 야강(婁羌)을 떼어 놓으시어 흉노의 오른팔을 잘라버리셨습니다.

- 『한서』 -

II 1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1 인구 이동

01. 인구 이동의 배경과 특징

배경	•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 정치적 갈등과 이민족의 침략, 국가 간 전쟁 등
특징	• 기원 전후부터 활발 •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으로 연쇄적 인구 이동 야기, 새로운 국가 수립이나 문화 전파 수반

02. 인구 이동의 사례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한 말부터 북방 유목 민족이 ①□□ 지역으로 이동 : 4세기 이후 ①□□ 지역에 여러 국가 건국 → 5호 16국 시대(304~439) • 유목 민족(②□□)의 침입으로 ③□□ 멸망(316) : 황족들이 ④□□(난징)에서 동진 건국(사마예, 317), 한족 일부가 ⑤□□□ 이남(강남)으로 이동하여 정착 <p style="text-align: center;">▲ 5호 16국과 한족의 이동</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서)진(晉)의 민제가 흉사를 당했다는 소식이 이르니 왕이 상복을 입고 여막에 살았다. 백관들이 황제 자리에 오르라고 청하였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기침이 말하였다. “진 황실의 대통이 끊어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폐하께서 당연히 대업을 이으셔야 합니다. 종실에 속한 사람들을 돌아보아도 누구에게 다시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장안과 뤼양, 두 도읍지는 불타 없어지고 종묘에는 신주를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충이 서북쪽에서 분수에 넘치게도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있으나, 폐하께서는 바야흐로 동남 지역에서 양보하며 계시니 이를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 결국 왕이 황제의 자리에 나아갔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자치통감』 -</p> </div>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족 : 기원전 1세기경 주몽 집단이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으로 남하 → 고구려 건국 • 고구려인 : 지배층 내부의 갈등으로 일부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 → 온조 집단이 백제 건국 → ⑥□□을 통합하며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세력 확대 • 고조선 유민 :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동 →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신라 건국의 토대 마련 • 낙랑군 유민 : 313년 ⑦□□□에 의해 멸망한 이후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동 → 백제 발전에 기여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삼국 시대 및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에 많은 주민이 일본 열도로 이주(⑧□□□) • 선진 기술 전파, ⑨□□□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

2 국가의 통합과 발전

01. 남북조 시대의 전개

<p>북위의 화북 통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이 세운 북위(탁발도)가 439년 화북 통일 • ②효문제(재위 471~499)의 □□ 정책 • : 평성에서 ③□□으로 천도, 조정에서 선비어 사용 금지, 한족의 언어와 풍습 수용, 한족의 성씨 사용, 한족과의 혼인 장려 등 → 유목 민족 문화와 한족 문화가 점차 융합(호한 융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제가 말하길, “짐은 평성에는 조운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의 백성들이 가난하였다고 생각 한다. 짐이 휘양으로 천도한 것은 사방의 조운을 유통하려 한 것인데, 백성들이 오히려 황허강의 흐름이 험난하다고 꺼리고 있으니, 짐의 이번 행차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 황제가 말하길, “무릇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으니, 예약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모든 북방 언어의 사용을 단절하고 한족의 언어를 따르려 한다. …… 그 나이가 30세 이하인 사람이 조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하는 것에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만약 고의로 사용한다면 마땅히 관직을 깎아내리거나 쫓아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p style="text-align: right;">- 『자치통감』 -</p> </div>
<p>남조의 성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진이 멸망한 이후 송(유유), ④□(소도성), 양(소연), ⑤□(진패선)의 한족 정권 수립 → 북위 등의 북조와 대립(남북조 시대)

02. 수·당의 건국과 발전

<p>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기 후반에 남북조 시대 통일(589), ⑥□□□를 여러 차례 침략하였으나 실패
<p>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세기 초 수의 멸망 이후 중원 장악(618) • 돌궐 및 ⑦□□ 공격,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

03. 삼국의 항쟁

<p>백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세기에 고구려와 패권 다툼, 남조·왜와 연결
<p>고구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기에 한반도 주도권 장악 → 6~7세기 수·당과 대립
<p>신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기에 한강 유역 확보 및 가야 병합, 황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



04. ④□□□ 정권의 성장

성립	• 4세기경 일본 열도에서 ④□□□ 지방의 호족들이 연합하여 성립
발전	•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을 통합하며 영역 확대 • ④□□□□을 만들어 지배자의 권력 과시 • 중국과 한반도 등지의 선진 문물을 수용, ④□□□ 제작, ④□□□ 문화(일본 최초의 불교문화) 발달

3 동아시아 국제 전쟁과 지역 통일 국가의 등장

01. 7세기 동아시아 전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8년 ㉠□□ 연합 결성 → 백제 멸망(660) → ㉡□□ 전투(663) → 고구려 멸망(668) • 당의 한반도 전체 지배 의도 표출 → 신라가 백제·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군을 축출 → 신라의 삼국 통일 완성(676)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이 백제의 영토에 웅진·마한·동명 등 다섯 도독부를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각기 주·현을 통할하였고, 그 우두머리를 세워 도독·자사 및 현령으로 삼았다. 왕문도에게 명해 웅진 도독으로 삼았고, 군대를 총괄하여 그곳의 백성을 안정시키고 달래게 하였다. • 용삭 3년(663) 황제가 신라에 조서를 내려 그 나라를 계림주 도독부(鷄林州都督府)로 삼고, 김법민(문무왕)에게 계림주 도독(鷄林州都督)을 제수하였다. • 당이 고구려의 영토를 나누어 9도독부 42주 100현을 설치하고, 다시 안동 도호부를 두어 이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지역의 장수 중에 공이 있는 자를 뽑아 도독·자사 및 현령에 제수하였다. 이어서 설인귀를 보내어 군사를 총괄하여 백성을 위무하도록 하였다. <p style="text-align: right;">- 『구당서』 -</p> </div>
-----------	--

02. 지역 국가의 성립

당	• 동아시아의 패자로 성장하여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
통일 신라	•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지배
㉢□□	•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과 함께 건국(698) → 통일 신라와 병존하는 남북국 시대 전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토쿠 태자의 섭정(593~622) : 12계 관위(官位)와 17개 조 헌법을 제정해 일본 정치체제를 확립, 불교 보급 • ㉣□□□를 파견하여(630~894) 선진 문물 수용 • 을사의 변(645) : 나카노오에 황자가 도당 유학생 등의 협력을 받아 소가노 이루카 등 소가씨 세력 제거 • ㉤□□□ □□ : 고토쿠 천황, 당의 율령 체제를 도입하여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려는 개혁 추진 • 7세기 후반부터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 사용 • 당의 장안성을 참고하여 나라에 ㉥□□□□를 건설하고 천도(710)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겐메이 천황이 조를 내리길, “경사(京師)는 백관이 일하는 곳이요, 천하의 백성들이 귀의하는 곳이다. …… 옛날에 상의 왕은 5번 수도를 옮겨 중흥을 이루었고, 주왕은 3번 천도하여 태평을 이루었다. 지금 나라(平城)의 땅이 길흥에 맞고 점괘도 좋으므로 마땅히 도읍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건설 자재는 사안에 따라 주청하라.”라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 『속일본기』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에 ㉦□□□□를 건설하고 천도(794)

II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1 조공·책봉 관계의 형성

01. 주(周) 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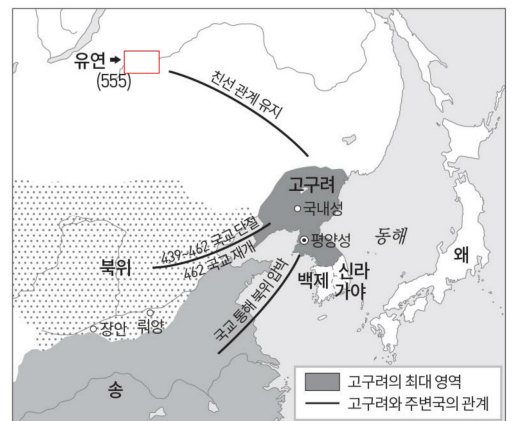
특징	• 주로 혈연을 기초로 왕실과 제후 사이에 성립된 관계
-----------	--------------------------------

02. 한(漢) 대의 외교 관계

고조	•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 → 매년 많은 물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음		
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 유교적 통치 이념과 ❶□□□(華夷觀) 확립 •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조공과 책봉의 형식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특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와 실제적인 간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교의 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 →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td> </tr> </table>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와 실제적인 간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교의 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 →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와 실제적인 간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교의 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 →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후한 광무제	• 왜의 노국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후 책봉을 하여 금인 하사		

03. 남북조 시대의 다원적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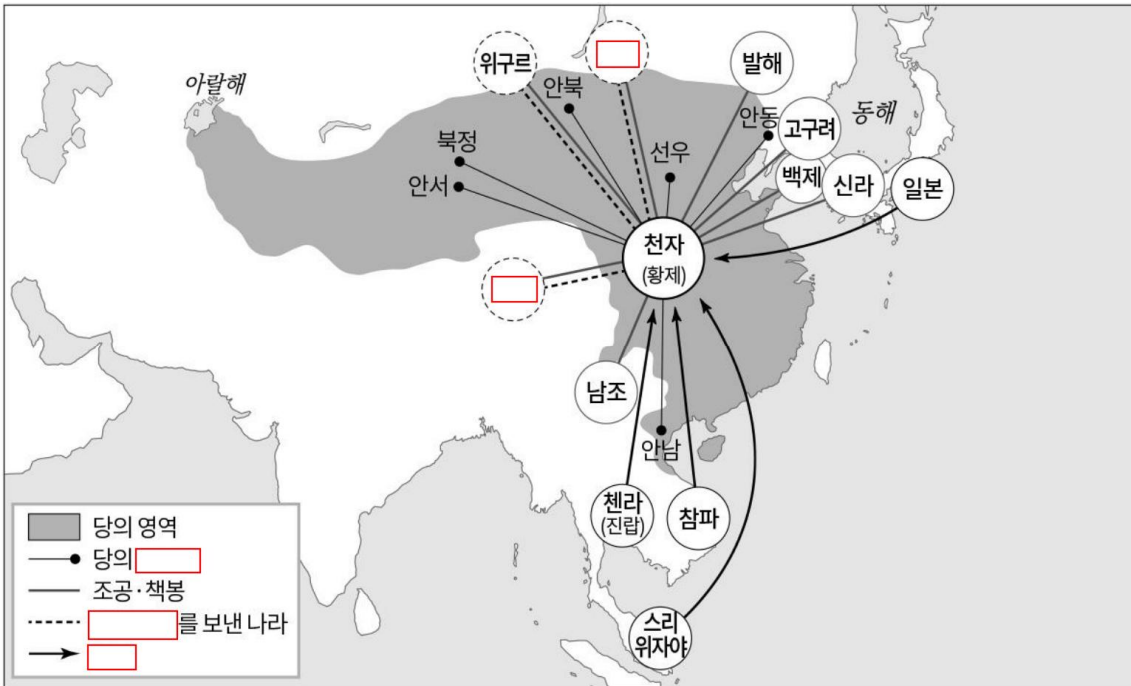
관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멸망 이후 각국이 새로운 정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외교 활동 전개 • 조공·책봉 관계가 강대국 중심의 외교 형식에서 상호 우호 관계 확인을 위한 현실적·다원적 외교로 변화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그대는 지난날 북으로는 유연(402~552)과 통하고 서로는 하·북량·토욕혼과 연결하고 동으로 북연·고구려와 연합해 왔다. 무릇 이 몇 나라는 내가 거의 멸망시켰다. 이로써 보건대 네가 혼자 어찌 설 수 있단 말인가! …… 내가 이제 북으로 유연을 정벌하려는 것은 먼저 강한 적을 없애고자 함이다. 그대가 만약 명을 따르지 않으면 다가오는 가을에 다시 와서 취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자치통감』 -</p> </div>						
각국의 외교 활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남북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음 • 서로 사절 교환,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간주 </td> </tr> <tr> <td>만주 한반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❷□□□ :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백제 : 주로 ❸□□와 조공·책봉 관계 유지 • 신라 : 6세기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❹□(502~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한강 유역 장악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 </td> </tr> <tr> <td>왜</td> <td>• 5세기에 ❺□□와 조공·책봉 관계 형성,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td> </tr> </table>	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음 • 서로 사절 교환,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간주 	만주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❷□□□ :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백제 : 주로 ❸□□와 조공·책봉 관계 유지 • 신라 : 6세기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❹□(502~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한강 유역 장악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 	왜	• 5세기에 ❺□□와 조공·책봉 관계 형성,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
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음 • 서로 사절 교환,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간주 						
만주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❷□□□ :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백제 : 주로 ❸□□와 조공·책봉 관계 유지 • 신라 : 6세기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❹□(502~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음 → 한강 유역 장악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 						
왜	• 5세기에 ❺□□와 조공·책봉 관계 형성,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						



04. 당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당 중심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국에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요구 정복 활동을 통해 안북·선우·안동·안남 ⑥□□□ 등 설치 		
신라, 발해와 당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수용[신라(713), 발해(762)] : 정권 안정과 선진 문물 도입,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 대처 목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함 : 당의 침략이나 간섭에는 강력하게 대응(나당 전쟁, 발해의 산둥반도 공격 등) 		
일본과 주변국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당과 ⑦□□ 관계만 맺음 : 견당사 파견(당의 문물 수용 목적) → 9세기 말 파견 중지 신라, 발해와도 사신 교환 		
유목 민족과 당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당 중심의 ⑧□□ 관계 미수용 → 경제적 교류를 위한 ⑨□□ 관계만 원함 경제적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을 공격 → 당이 화친 정책의 하나로 ⑩□□□□ 파견 		
	<table border="1"> <tr> <td>돌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르크계 민족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 건설 당 고조(이연)는 신하로 자처, 태종은 형양 공주 파견 </td> </tr> </table>	돌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르크계 민족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 건설 당 고조(이연)는 신하로 자처, 태종은 형양 공주 파견
	돌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르크계 민족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 건설 당 고조(이연)는 신하로 자처, 태종은 형양 공주 파견 	
	<table border="1"> <tr> <td>티베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싸 도읍 송첸감포 : 당에 화번공주를 요구하며 토욕혼 공격, 당의 문성 공주 파견(640) </td> </tr> </table>	티베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싸 도읍 송첸감포 : 당에 화번공주를 요구하며 토욕혼 공격, 당의 문성 공주 파견(640)
티베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싸 도읍 송첸감포 : 당에 화번공주를 요구하며 토욕혼 공격, 당의 문성 공주 파견(640) 		
<table border="1"> <tr> <td>위구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궐 제2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 수립(744) 당 덕종이 함안 공주 파견(788) </td> </tr> </table>	위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궐 제2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 수립(744) 당 덕종이 함안 공주 파견(788) 	
위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궐 제2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 수립(744) 당 덕종이 함안 공주 파견(788) 		
자국 중심 천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각국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을 중심에 놓고 조공·책봉의 외교 형식을 활용 독자적 연호와 군주 칭호 사용 		

● 당 대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II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2 북방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외교 질서

01.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

중국	• 당 멸망 후 5대 10국 시대(907~979) 전개 → 송이 중국을 통일하여 분열을 수습함
북방 유목 민족	• 거란(요), 서하, 금의 성장 → 다원적 국제 관계 형성

02. 북방 민족의 성장

거란 (916~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가 건국, 수도 상경 임황부 • ②□□ 정복(926), 만리장성 이남의 ③□□□□ 차지(936), 송을 압박하여 ④□□□ □□ 체결(1004) • 이원적 통치 정책 : ⑤□□□□(유목민)·□□□□(농경민) 실시 • 고유 관습 유지 노력 : 거란 문자 사용 등
서하 (1038~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구트족 ⑥□□□가 건국, 수도 흥경 • 비단길을 통해 동서 무역 전개 • 책봉과 교역을 둘러싸고 송과 전쟁 → 송으로부터 은과 비단, 차 등을 받음(경력의 화약, 1044) • 고유 관습 유지 노력 : 서하 문자 사용
금 (1115~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⑦□□□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건국, 수도(상경 회령부 → ⑧□□ → ⑨□□□ → 채주) • ⑩□□과 연합하여 거란(요) 공격 → 금이 거란(요) 정복(1125) → ⑪□□을 공격하여 화북 차지 • 서하, 고려, 남송과 ⑫□□ 관계 체결 • 이원적 통치 정책 : ⑬□□·□□□□(여진족, 거란족 등), ⑭□□□□(한족 등) 실시 • 고유 관습 유지 노력 : 여진 문자 사용 등

03. 송의 성쇠

문치주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절도사의 권한 대폭 축소, 황제권 강화 추구 • 결과 : 군사력 약화 초래 → ⑮□□·□□에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평화 유지
남송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의 공격으로 변경(⑯□□□) 함락 → 북송 멸망(정강의 변) → 조구(고종)가 남송을 세우고 ⑰□□(항저우)을 도읍으로 삼음 • 금과 ⑱□□ 관계 체결(소흥화의, 1142)



▲ 11세기 동아시아 형세



▲ 12세기 동아시아 형세

04. 고려의 대외 관계

거란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화친 → ⑲□□ □□ 지역 확보 • 3차 침입 격퇴 이후 조공·책봉 관계 유지
금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관이 ⑳□□□□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여 ㉑□□ □□ 축조(1108) • 여진이 금을 건국한 이후 군신 관계 체결
송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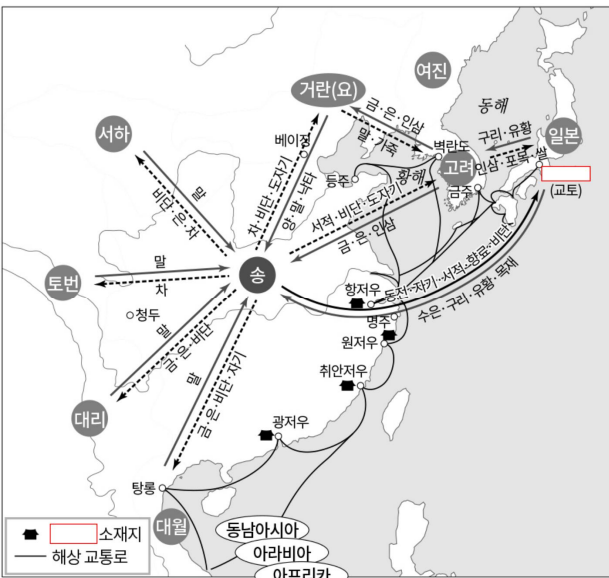
우리나라(고려)는 조상 대대로 귀국과 교류하며 공손히 명령에 따르는 정성을 감히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소. …… 지금 황제의 조서를 보니, …… 고려도 군사를 이끌고 서로 하나가 되어 금에 천벌을 내리자고 하였고. …… 우리의 모자라고 나약한 병사들로 새롭게 승기를 잡은 오랑캐(금)를 당해 낸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하오. 다만 군사를 훈련시키고 기계를 정비하였다가 귀국(북송)의 군대가 저들의 국경을 제압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감히 서로 하나가 되어 힘을 다하지 않겠소?

- 『고려사』 -

05. 일본의 대외 관계

9세기 말	• 22□□ 파견 중지(894) → 10세기 이후 주변국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축소
12세기 말	• 24□□□□ □□□□가 가마쿠라 막부 수립(1185) → 천황으로부터 24□□(정이다장군)으로 책봉(1192) • 주변국과 외교 관계에 소극적, 민간 교류는 지속
민간 차원	• 송의 25□□을 대량으로 수입, 송 상인과 승려를 통한 교류 지속 • 쓰시마를 통한 고려와의 교류 지속

● 동아시아의 교역



3 몽골 제국의 등장과 동아시아

01.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

성립	• 13세기 초 몽골 지역에서 테무친이 몽골계 부족 통합 →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1206), 예게 몽골 울루스(대몽골 제국) 수립
발전	• 칭기즈 칸(재위 1206~1227) : 26□□·□□제에 기반하여 군사력 강화 : 27□□ 복속(1209)과 정복(1227), 28□□ 침공과 화친 조약 체결(1214), 29□□의 연경 함락(1215), 30□□□□ 정벌(비단길 장악) → 그의 후계자들은 동유럽까지 진출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 건설 • 오고타이(우구데이) 칸(재위 1229~1241) : 31□□ 침공 시작(1231), 32□□ 정복(채주 점령, 1234) • 33□□□□ 칸(재위 1260~1294) : 카라코룸에서 34□□(베이징) 천도, 국호를 원으로 정함(1271) : 고려 복속(1260), 일본 침공(1274·1281) : 35□□ 정복(애산 전투, 1279) → 유목 민족이 중국 전역 지배

국초를 살펴보면 병사를 관할하는 관원은 병사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작위의 준비가 나뉘었다. 만 명의 장정은 만호, 천 명의 장정은 천호, 백 명의 장정은 백호로 삼았다. 세조(쿠빌라이) 때에 관계를 두루 정비하여 내부로는 오위를 설립하여 숙위의 여러 군대를 총괄하게 하고, 위에는 친군도지휘사를 설치하였다. 외부로는 만호 예하에는 총관, 천호 예하에는 총파, 백호 예하에는 탄압을 두었으며 추밀원을 세워 이를 총괄하였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행추밀원을 설치하고, 사안이 이미 끝났다면 폐하고 도진무사를 행성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만호, 천호, 백호는 상, 중, 하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만호는 금호부 …… 천호는 금부, 백호는 은부를 소지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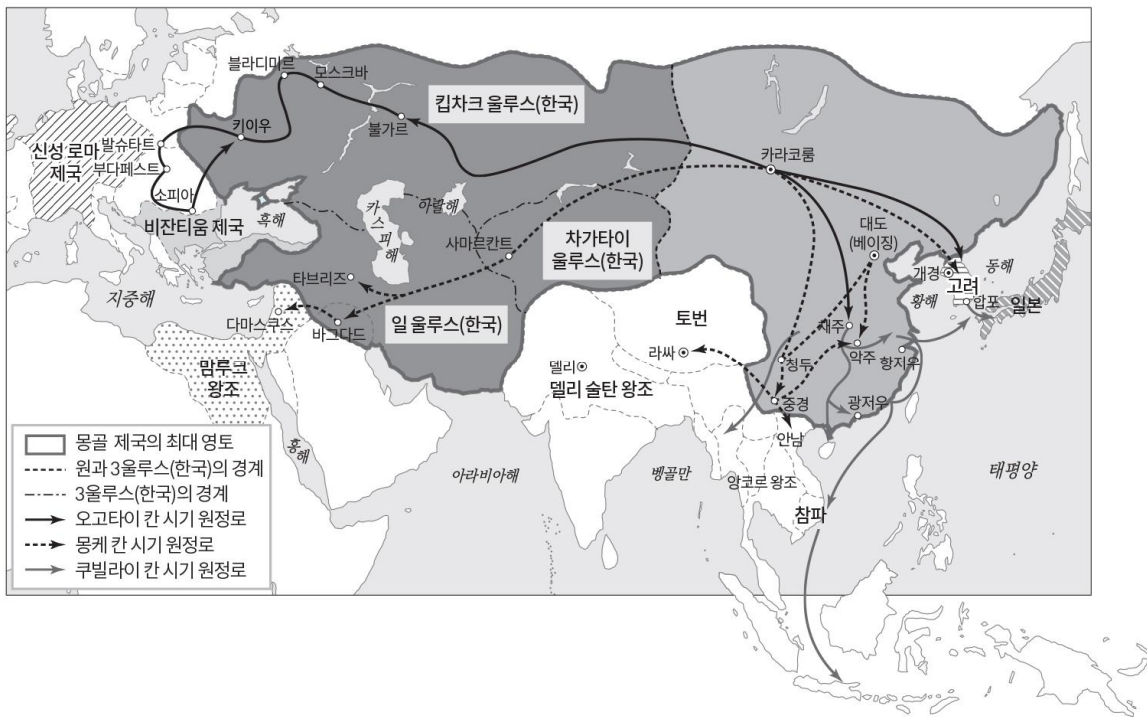
- 『원사』 -

02. 통치 방식

지배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년 1300년 확립 • 몽골인이 정치·군사 담당, 색목인이 재정 담당, 한인과 1300년(남송의 한인)은 피지배층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설치, 1300년 1300년 파견

03. 동아시아 각국의 대몽 항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년 1300년로 천도하여 장기 항전 → 몽골과 강화를 맺은 후 개경으로 환도(1270) → 삼별초의 저항
대월(大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쩐(陳, 1225~1400) 왕조 시기 몽골의 세 차례 침략(1257·1284·1287) → 1300년 1300년의 활약 등으로 격퇴 → 몽골에 조공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두 차례 일본 원정 → 1300년 1300년 막부의 저항과 태풍으로 실패



04. 교역망의 통합과 교류의 활성화

교역망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년 1300년 설치, 초원길·비단길 등의 교역망을 안정적으로 확보 • 1300년 1300년 설치 : 항저우, 취안저우 등에서 무역 관리 • 동아시아 교역망 형성 : 고려,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 연결 • 1300년 1300년 : 12세기 1300년 왕조 시기부터 발행 → 원에서 전국적으로 유통
동서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아시아 문물 전래 :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 • 1300년 1300년 1300년 이븐 바투타의 활동 등

- 4□□□ □□ : 원대 중국을 방문한 뒤 『동방견문록』을 남겼다. 이 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유럽에 알려졌다.
- 이븐 바투타 : 모로코 출신의 순례 여행자로 원대 중국을 방문하고 『여행기』를 통해 역참과 교초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4 명의 건국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01. 명(1368~1644)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조 홍무제(주원장, 재위 1368~1398) : 홍건적의 난 가담 → 강남 지역의 한족 지식인을 지원으로 명 건국(1368), 4□□을 수도로 삼음 :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축출, 한족 문화 회복 노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조 4□□□(주체, 재위 1402~1424) : 정난의 변을 통해 즉위, 4□□□을 건설하고 4□□□ 천도 : 몽골 공격, 5□□□의 항해 시작(1405), 5□□□(호 왕조) 침공과 일시적 점령(1407)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예전에 『도이지략』을 보았는데 천시 기후의 구별, 지리와 인물의 이채로움을 기재하니 '천하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다를 수 있는가'라고 탄식한 적이 있다. 영락 11년에 황제가 정화에게 보선을 거느리고 서쪽 여러 나라들에 가서 황제의 조서를 선포하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상을 주게 하였다. 나는 변인들의 책을 통역하는 사절의 말단이 되어 그가 이르는 곳을 따르니 파도의 광대하고 아득함이 그 몇천만 리인지 알지 못한다. - 『영애승람』 - • (선덕) 6년 8월 8일 므라카를 출항하여 18일 수마트라에 도착하였다. …… 11월 18일 고리국에 도착하였다. 22일 출항 후 여러 날을 항해하여 12월 25일에 호르무즈에 정박하였다. (선덕) 8년 2월 18일 출항하여 3월 11일 고리에 도착하였다. 20일에 대장선이 귀항하여 4월 6일 수마트라에 정박하였다. 12일 출항하여 9일 후 20일에 므라카에 도착하였다. - 『전문기』 - </div>

02. 조선(1392~1910)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 위화도 회군(5□□□□) 이후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 건국
-----------	--

03. 무로마치 막부(1336~1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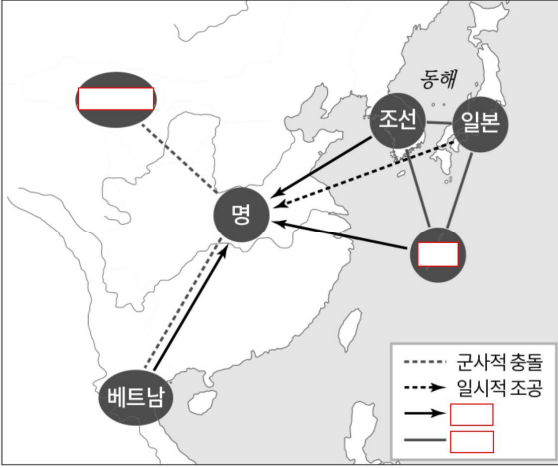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쿠라 막부의 쇠퇴 : 몽골·고려 연합군의 침략 격퇴 → 이후 정치 혼란으로 쇠퇴 → 고다이고 천황과 무사 세력이 연합하여 가마쿠라 막부 붕괴(1333) → 고다이고 천황의 친정 • 무사들의 지지를 받은 5□□□□ □□□□가 교토에 수립
남북조의 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의 천황(북조)을 내세운 무로마치 막부와 요시노로 피신한 천황(남조)의 대립 시작(1336) • 제3대 쇼군 5□□□□ □□□□(재위 1368~1394)가 남북조 시대 통일(1392) →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 확립

04. 국제 질서의 재편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에 조공·책봉 요구 → 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조선, 5□□, 여진, 일본 포함) • 정화의 항해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조공하는 사례 증가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 직후 요동 정벌 추진(명과 대립) → 태종 즉위 이후 명과 안정적인 조공·책봉 관계 형성(1401)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과 국교 수립 : 명 황제가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쓰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1401·1403) : 명과 6□□ □□ 전개(1404~1547) • 조선에서 7□□□ 파견(1429~)
-----------	---

● 15세기 초 동아시아



II 3 유학과 불교

1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01. 율령과 유교

율령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률적 통치 기준, 국가 통치 조직·관리 복무 사항·백성의 조세와 노역 등을 규정 율(律) : 범죄 행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벌 위주 법률 영(令) : 국가의 조직과 운용, 신분과 수취 제도 등을 규정한 행정 위주 법률
법가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시대 : 법가 사상이 활약(㉠□□, 이사 등) 진 : 시황제가 법가 사상에 기반한 통치 → 진의 법률이 한에 의해 계승
유교 통치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 윤리 :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조, 가족과 향촌 질서 유지 한 ㉡□□ :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시, 유학 교육 기관인 ㉢□□ 설립
법가 + 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대에 정교한 법의 통제와 가족 및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사교가 율령에 반영 → 수·당대에 이르러 율령 체제 완성

춘추의 대일통이란 공간적으로 세상의 영원한 원칙이며, 시간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공통된 이치이다. 현재 학자마다 그 지향하는 진리가 다르고, 사람마다 그 주장하는 이론도 다르며, 온갖 학파가 방향을 달리하면서 그 취지도 같지 않다.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은 통일된 양식을 일관되게 지킬 방법이 없고, 법제가 자주 바뀌어 아래 사람들은 지켜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에 육예의 과목과 공자의 학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금지하여 함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한서』, 「동중서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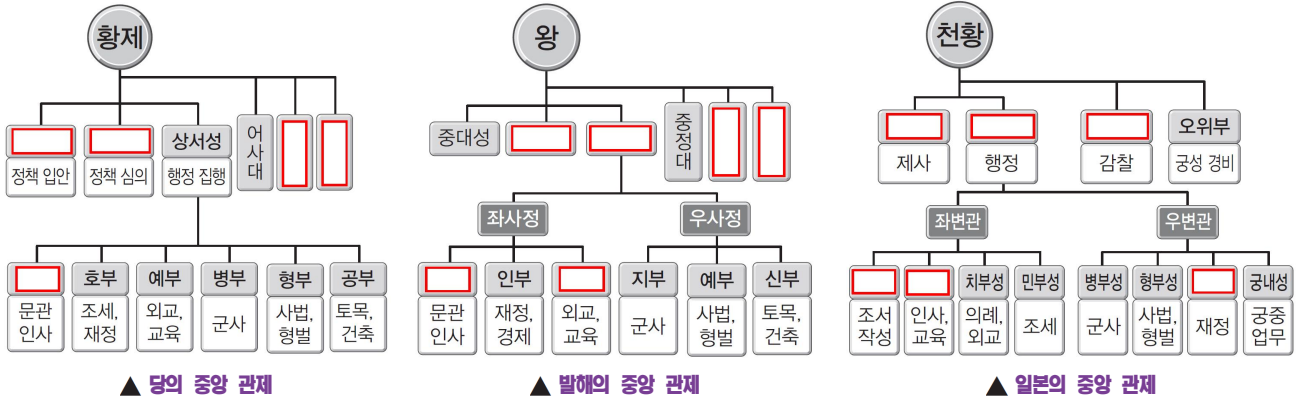
02. 수·당의 통치 제도

율령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율·영·격·식 완성 : 율령에 격(율령 추가·보완), 식(구체적 시행 세칙)을 추가
3성 6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성 : 중서성(정책 입안), ㉣□□□(정책 심의), 상서성(행정 집행) → 황제의 통치 보좌 6부 : ㉤□□(문관 인사), 호부(조세·재정), 예부(외교·교육), 병부, 형부, 공부 → 행정 업무 담당
토지, 수취, 군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농민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영업전·구분전) 지급 조·용·조 : 토지를 받은 농민이 국가에 부담한 세금 ㉦□□□ : 성인 남자의 군역 의무
교육·관리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감(중앙 국립 교육 기관), 과거제로 관리 선발

03. 유교와 율령의 동아시아 전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치 기구와 이념, 관리 선발, 교육 제도에 영향 ㉧□□□□ □□□□ 형성에 영향 각국의 신분 질서와 관습에 따라 선택적으로 중국의 율령 수용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백성의 호구와 재산을 파악한 신라 촌락 문서 작성 골품제 유지, 유학 교육 기관인 국학 학생을 대상으로 ㉨□□□□□□를 마련하여 관리 선발에 참고(78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성[정당성, ㉩□□□(정책 심의), 중대성] 6부[좌사정(총부·인부·의부), 우사정(지부·예부·신부)] 중정대(감찰), 문적원(출판·도서관), ㉪□□□(중앙 국립 교육 기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이호 율령 반포(701) : 2관[㉫□□□(행정), 신기관(제사)] : 8성[좌변관(중무성·식부성·치부성·민부성), 우변관(병부성·형부성·㉬□□□·궁내성)] : ㉭□□□(감찰), 오위부(궁성 경비) : 7도 - 국(國, 중앙에서 관인 파견) - 군(郡, 현지의 지방 호족을 종신직으로 임명) - 리(里)

● 동아시아 각국의 중앙 관제



04. 과거제의 발전과 영향

과거제의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 수(과거제 최초 시행, 587), 송(황제가 최종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전시 제도 정례화) 한국 : 고려(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도입, 958), 조선(문과·무과·잡과 실시)
과거제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학자 관료층 성장, 학문적 능력 중시, 유학 발전,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군주권 강화

2 불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

01. 대승 불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1세기경 일반 신도를 중심으로 이타행(利他行) 강조, 부처(석가모니) 신격화, 부처의 자비로 중생이 구제될 수 있다고 주장
-----------	--

02. 불교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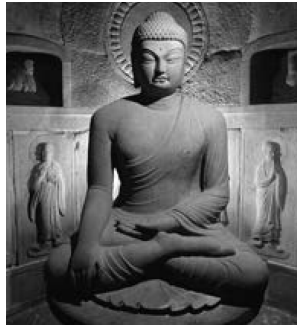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아시아를 거쳐(비단길) 중국에 전래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 시대 중앙 집권 체제 확립 과정에서 불교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소수림왕 때 16□□에서 수용, 372), 백제(침류왕 때 17□□에서 수용, 384), 신라[고구려를 통해 수용(457),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527)] : 왕족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 통일 신라 시대 원효(617~686), 의상(625~702)에 의해 18□□□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2년 16□□에서 전래(노리사치계), 토착 신앙(신토)과의 갈등 속에서 보급 왕실과 유력 가문의 권력 과시를 위해 대규모 사찰 건립 한반도의 영향 : 호류사 건축(607),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03. 불교의 토착화

20□□ 불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주가 부처라는 논리로 왕권 강화와 사회 안정 추구 국가의 지원과 주도로 대장경 제작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21□□ 시기 원강 석굴 사원(460년 조영 시작)-릉면 석굴 사원, 통일 신라의 황룡사와 석굴암, 일본 나라 시대의 22□□□□(東大寺) 등
-------------------	---



▲ 원강 석굴 사원의 대불



▲ 석굴암 본존불



▲ 도다이사 대불

<p>전통 사상 · 고유 신앙과 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유교 윤리 반영, ㉓『□□□□』(유교의 덕목인 효를 강조한 새로운 불교 경전) 간행 • 한반도 : 산신·칠성·용 신앙 등 토착 신앙과 결합, 사찰 내에 산신각이나 칠성각을 세움 • 일본 : 부처도 신토(신도)의 여러 신 중의 하나로 인식, 신토의 신들이 부처나 보살로 나타남(하치만 대보살 등) → ㉔□□□□(神佛習合)으로 이어짐 <p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구야 상인은 기온신사의 우두천왕에게 “원래 우두천왕은 역신(疫神)을 다스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역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히 원하건대 사람들을 구할 방도를 알려 주시오.”라고 빌었다. 이에 우두천왕은 “십일면관음불상을 만들고 기도하라.”라고 계시하였다. ……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자도 금세 열이 식고 완쾌하였다.</p>
<p>선종의 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 중시 • 확산 : 신라 말 호족의 지원을 받아 유행, ㉕□□□□ 막부 시대 무사 사회에서 유행

04. 불교문화의 발전과 확산

<p>불교 예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상, 불화, 범종 등
<p>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과 탑의 건립(중국은 전탑(벽돌탑), 한국은 석탑, 일본은 목탑 발달)
<p>목판 인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770) • 송·거란(요)·금의 대장경, 고려의 팔만대장경(1236~1251)

05. 인적·지적 교류의 증대

<p>불교문화 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교류와 지식 전파의 장소), 승려(구법 활동, 지식인으로 국제 교류) 	
<p>승려들의 교류와 활동</p>	<p>동진</p>	<p>㉖□□ • 인도 순례, 『불국기』 저술(416)</p>
	<p>양(梁)</p>	<p>달마 • 인도 승려, 중국에서 선종 창시(6세기)</p>
	<p>고구려</p>	<p>혜자 • 도일(595),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활동</p>
	<p>당</p>	<p>㉗□□ • 인도에 유학하고 불경을 가져와 번역, 『대당서역기』를 남김(646)</p>
		<p>㉘□□ • 도일 과정에서 실명 → 나라 도착(754) • 도다이사에서 계율을 전해 수계(受戒)하는 방식을 전수</p>
	<p>신라</p>	<p>의상 • 당에 유학하고 귀국하여 신라 화엄종 개창</p>
<p>㉙□□ •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 저술(727)</p>		
<p>일본</p>	<p>㉚□□ • 당 유학, 적산 법화원에 머물며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음 • 『입당구법순례행기』 저술(838~847)</p>	

양주부 관원의 질문 : 엔닌, 사미승 이쇼와 이교 뱃사람 데이유만 등은 태주의 국청사에 가서 스승을 찾아보고 태주에서 머물다가 다시 태주에서 수도 장안으로 올라갈 것인가? 또 유학승 엔사이는 사미승 닝코를 데리고 태주의 국청사로 가서 스승을 찾아보고 태주에서 머물다가 다시 태주를 떠나 수도로 갈 것인가?

엔닌의 대답 : 태주 국청사에 가서 스승을 찾아 불법의 의문점을 해결하기를 청합니다. 만약 그 주에 마땅한 스승이 없으면 곧바로 수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 주를 거쳐 지나가게 됩니다.

3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당의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도시 장안 : 발해 상경성(上京城), 일본 헤이조쿄(平城京) 구조에 영향 : 각국의 사신, 유학생, 상인, 승려, 예술가 등 외국인 체류 • 신라방·신라원, 발해관 등 설치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 : 장보고가 ①□□□(828~851)을 거점으로 당~한반도~일본을 잇는 해상 교역 주도 • ②□□ : 당(중국도), 신라(신라도), 일본(일본도), 거란(거란도) 등과 교류
일본의 견당사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문물 수용 → 당풍(唐風) 성행 • 견당사 중단 이후 ③□□(國風) 문화 발달, 예) 가나 문자

4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01. 송대 이전의 유학

한	• 유학의 관학화(통치 이념 역할), 훈고학 발달
남북조	• 불교와 도교의 융성으로 약화
수·당	• 과거제 시행으로 부흥, 당대에 경전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④『□□□□』 편찬(공영달 등, 653)

02. 송대 성리학의 성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대부의 성장(과거를 통해 관직 진출, 황제 중심의 문신 관료 체제하에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 • 거란(요)과 금 등의 압박으로 송대 한족의 민족의식 강화 → 중화사상, 화이관(華夷觀) 중시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이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 수용(이론적 탐구와 수양 강조 경향) → 우주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신유학 대두(복송, 정호·정이 형제)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사록』 편찬(1175) : 성즉리(性即理) 주장, 거경공리와 ⑥□□□□를 수양 방법으로 제시 • 성리학 집대성, 오경보다 사서 중시, ⑦『□□□□』 편찬(1177)

03. 성리학의 영향과 보급

성리학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자가례』와 ⑧『□□』(1187)의 보급 : 동아시아에 성리학적 가치관 확산 • 대의명분과 화이관 강조
성리학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 선현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한 사설 교육 기관, 사대부 결집에 영향 • 향약 : 서민에게 성리학적 규범이 확산되는 데 기여 • 명·청대 신사층이나 조선 시대 양반층에 의해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

04. 성리학의 확산

<p>한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후기 안향 등이 본격적으로 소개, ㉠□□ □□□에 의해 수용·확산 : 고려 말 ㉡□□ □□□가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반 → 불교와 권문세족 비판 :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반, 국가 통치 이념, 각종 사회 의례의 기준 • 성리학의 이해 심화 : 우주론과 인간 심성 문제 논쟁 → 학파 형성에 영향을 줌 • 사림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백운동 서원(㉢□□□□)]과 향약 보급 : 이황(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 이이(통치 체제 정비와 수취 제도 개혁 방안 제시)의 성리학 연구 • 성리학적 사회 질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자가례』에 의한 관혼상제 확산, 부모 삼년상, 가묘와 사당 건립, 장자 중심의 상속과 제사 확산
<p>일본 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막부 시대 후기에 전래 →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 • ㉤□□□□ □□□(1561~1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강항과 교류, 『사서오경왜훈』 집필(1599) • ㉥□□□ □□(1583~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의 제자 :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 성리학이 관학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

5 양명학의 발전

<p>등장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리학이 과거 합격에 치중, 사회 모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이 곧 이(理)’라는 심즉리(心卽理) 강조 : 양지(良知), 치양지(致良知), 앎과 실천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 등 실천적 철학 증시 •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 → 신분 제도에 비판적 입장

• 나쁜 냄새를 맡는 것은 지(知)에 속하고, 나쁜 냄새를 싫어하게 되는 것은 행(行)에 해당한다. 만일 나쁜 냄새를 맡았다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싫어하게 되는 것이지, 나쁜 냄새를 맡고 난 뒤에 달리 결심해 나쁜 냄새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 이와 같으니 지(知)와 행(行)을 어찌 따로 떼어 놓을 수 있겠는가.

• 내가 말하는 ㉩□□□□(格物致知)는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모든 사물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는 천리(天理)이다. 내 마음의 양지, 즉 천리(天理)를 모든 사물에 이르게 하면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치지(致知)’이다.

- ㉨『□□□』 -

III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1 임진왜란 이전 동아시아의 정세 변동

01. 명의 동요(15~16세기)

국내	• 환관 득세, 향촌 질서 동요	
대외	몽골(북로) 침입	• 15세기 : 오이라트부와 대립 과정에서 ㉠□□□□ □ 발생(정통제, 1449) • 16세기 : 타타르부의 침략으로 수도 베이징이 포위됨(경술지변, 가정제, ㉡□□□□)
	왜구(남왜) 침입	• 명의 무역 통제에 불만을 품은 왜구가 동남 해안 일대에서 약탈 자행

1564년(가정 43) 2월, 왜구의 잔당이 새로운 왜구 만여 명을 규합하여 3일 동안이나 흥화부 선유현을 포위 공격하였다. 척계광은 현성 아래에서 이들을 격파하고 왕창평까지 추격하여 수백 명을 참수하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절벽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죽었다. 살아남은 무리 수천 명은 장주부 장포현의 채비령으로 달아났다. 척계광은 군대를 다섯 부대로 나누어 각 병사마다 작은 무기를 휴대한 채 절벽에 매달려 오르게 함으로써 수백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잔당은 고깃배를 탈취하여 바다로 달아났다.
- 『명사』 -



02. 장거정의 개혁(1572~1582)

대외	• ㉢□□과 강화
대내	• 토지 조사 시행, ㉣□□□□ 확대 시행(1581) → 장거정 사후 개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혼란 심화

03. 조선의 정세

국내	• 15세기 이후 공신들이 훈구 세력 형성 • 15세기 말 사림 세력이 훈구 세력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 → ㉤□□(士禍) 발생(1498~1545) • 16세기 후반 사림 세력이 정계 주도권 장악 → 붕당(朋黨) 형성(1575) • 토지 겸병의 심화와 방납의 폐단 등으로 농민 부담 가중 • 오랜 평화와 균역 제도의 문란으로 국방력 약화
대외	• 조선 초 명과 ㉥□□ 외교, 여진과 일본에 대하여 ㉦□□ 정책 추진

04. 일본의 정세

센고쿠 시대	• ㉧□□□ □(1467~1477) 이후 각지의 다이묘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분열 시대 전개 •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 전래(1543) • ㉩□□□□ 전투(1575)의 승리로 오다 노부나가 세력 확대 → 혼노지의 변(아케치 미쓰히데의 모반으로 오다 노부나가 자결, 1582)
도요토미 히데요시	•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센고쿠 시대의 혼란 수습(1590) • 전국적인 토지 조사 실시, 도량형 통일 • 농민의 ㉪□□ 몰수(도수령, 1588), 신분 간 이동 금지 • 무사-상공업자의 거주지(㉫□□□□)와 농민의 거주지가 구분됨 → 병농 분리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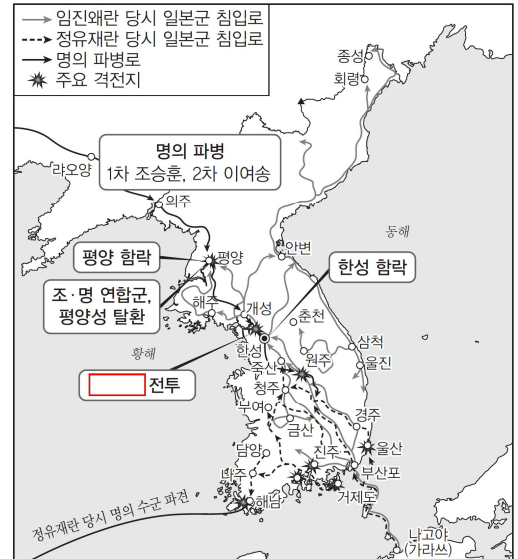
2 임진왜란과 정유재란(1592~1598)

01. 배경

- 영토 확장과 명과의 ㉠□□ 재개에 대한 일본의 열망
- 일본의 국내 정치 안정 도모

02. 전쟁의 전개

임진왜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의 부산포 급습(1592. 4월) : 일본군의 한성 함락(1592. 5월), 함경도 진격 •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수군(이순신)과 의병의 활약 : 명의 원군 파병(조승훈·이여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공국 보호를 통한 중화 질서 유지, ㉡□□□□ 보호 : 조·명 연합군의 ㉢□□□□ 탈환(1593. 1월) : 명군의 ㉣□□□□ 전투 패배(1593.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제의로 강화 협상 본격화
강화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무리한 요구 : 명 황제의 공주를 천황의 후궁으로 보낼 것, 명과 일본 간의 무역을 재개할 것, 조선의 남부 4도를 넘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여에 걸친 강화 협상 결렬
정유재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 협상 실패 후 일본의 조선 재침략(1597) •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일본군 철수(1598)



▲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전개

- 화평의 서약이 틀림없으므로 천지가 다하더라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명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삼을 것
- 양국은 지난 여러 해 동안 틈이 벌어져 감합이 최근에 단절되었다. 관선, 상선이 왕래할 것 ……
- 조선은 작년에 군대를 보내 벌하였다. …… 8도를 분할하여 4도와 국성(國城)은 조선 국왕에게 돌려줄 것이다. ……
- 4도는 이미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왕자와 대신 1~2명을 인질로 일본에 보낼 것

- 『남선구기』 -

03. 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감소와 국토 황폐화, 국가 재정 악화 • 명을 숭양하는 분위기 고조(㉤□□□□(再造之恩,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 • 일본과 국교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체결(1609) → 왜관(倭館)을 통한 무역 허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시마 번주(藩主)에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 쓰시마 번주(藩主)의 세전선은 20척으로 한다. •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 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항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div>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전투(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쿠가와와 이에야스를 따르는 동군과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받들던 서군(이시다 미츠나리) 사이에 벌어진 전투 → 동군의 승리 •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 막부 수립(1603)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 만력제(재위 1572~1620) 시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참여로 재정 소모 • 세금[광세(礦稅)] 징수 과정에서 환관의 횡포 심화(1596) →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 발생
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으로 조선과 명의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 ㉨□□□□가 부족 통합(1616)

3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01. 정묘호란 이전의 상황

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세력 확장 → 여진 부족 통합, ㉡□□□ 정비 → 후금 건국(1616) • ㉢□□□□가 랴오둥 진출을 시도하여 명 압박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해군(재위 1608~1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이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내세우며 후금과의 전쟁에 조선의 출병 요청 : 중립 외교 →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들어주면서도 후금을 자극하지 않기를 희망 → 강홍립 부대 파견 [강홍립은 후금과의 적극적인 전투를 피하면서 ㉣□□□ 전투(1619)에서 후금에 투항]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평안 감사가 치계하기를, “중국 대군과 우리 군대가 4일 ㉤□□□에서 크게 패전하였습니다. …… 유격 교일기가 앞장서 가다가 갑자기 부차 지방에서 적의 복병을 만나 전군이 패하고 혼자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도독 유정이 선봉 군대가 불리한 것을 보고 군사들을 독촉하고 전진해 다가갔으나, 적의 대군이 갑자기 들이닥쳐 산과 들판을 가득 메우고 기병이 마구 돌격해 와서 그 기세를 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 강홍립은 편복(便服) 차림으로, 김경서는 투구와 갑옷을 벗어 오랑캐 깃발 아래에 세워 두고 오랑캐 진영으로 갔는데, 적은 강홍립과 김경서로 하여금 우리 군대를 타일러 갑옷을 벗고 항복하게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광해군일기』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재위 1623~16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반정(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중립 외교 실시 등의 구실로 축출,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 ㉥□□□□) → 왕으로 즉위 : 집권 세력인 서인이 ㉦□□□□(親明排金) 정책 시행

02. 정묘호란(1627. 1월~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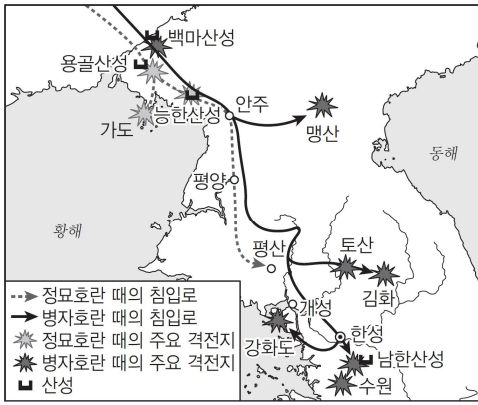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반정 이후 조선의 ㉧□□□□ 정책 • ㉨□□ 사건[가도 도독부 도독 모문룡(㉩□□□□~1629)에 대한 조선의 지원 강화] → 명의 인조 책봉(1625)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금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 침략 → 인조의 강화도 피난 → 2개월간 지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위협 등을 의식한 후금이 조선과 ㉪□□의 맹약을 맺고, 세폐(歲幣)를 받는 조건으로 철수

적의 쏠살같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 첫째는 땅을 갈라 주어야 할 것, 둘째는 모문룡을 잡아 바쳐야 할 것, 셋째는 군사 1만 명을 빌려주어 남조(明)를 함께 치도록 할 것 등이었다. 임금께서는 난리를 피해 강도(江都)로 들어갔다. …… 적의 장수 유해는 평산으로부터 강도로 들어가 임금을 꼭 뺏자고 하였다. 임금은 하는 수 없어 그의 요청에 따라 상읍례를 억지로 행하게 되었다. 그는 또 천계(天啓, 명 희종 시기) 연호를 없애라고 위협한 다음, 왕자를 볼모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종실 사람을 왕제(王弟)로 삼아 보내게 되었고, 강도 서문 밖에 단을 쌓고 재신에게 백마와 오우(烏牛)를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맹약을 맺도록 하였다. 4월에야 임금이 환도하였다.

- 『성호사설』 -

03. 병자호란(1636. 12월~1637. 1월)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금의 흥타이지(재위 1626~1636~16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제건원(稱帝建元) → 황제를 칭하고 연호 '승덕(崇德)' 사용, 국호를 청으로 변경(1636) : 조선에 ㉫□□ 관계 요구 → 조선 내에서 ㉬□□□□과 주화론 대립 → ㉭□□□ 득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타이지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 침략 → 인조가 ㉮□□□□에 피신하여 항진
결과·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에 항복 → 대청 황제 공덕비 건립(1639) •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과 조공·책봉 관계 체결, ㉯□□과 외교 관계 단절, 청의 요구로 명과의 항쟁에 필요한 물자 제공 :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삼학사(三學士) 등을 청의 심양(瀋陽)으로 압송 : 효종(재위 1649~1659) 때 ㉺□□□ 대두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전개

병자년과 정축년의 일은 하늘이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짐승 같은 것들이 뿔박해 와 우리를 남한산성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삼전도에서 곤욕을 주었으며, 우리 백성을 도륙하고 우리 의관(衣冠)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 선왕께서는 종사를 위해 죽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 수치심을 버렸습니다. …… 우리나라의 정예로운 병력과 강한 활 솜씨는 천하에 소문이 난 데다가 화포와 조총을 결들이면 넉넉히 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사 1만 대(隊)를 뽑아 베이징을 향해 기어코 앞으로 나아가고 …… 청(靑)·제(齊)·회(淮)·절(浙) 등지에 격서를 전하고 서촉(西蜀)까지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미워하고 같이 떨치어 일어나게 한다면 적들의 교활한 마음을 놀라게 할 수 있으며 천하의 충의로운 기운을 크게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종실록』 -

4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문물의 교류

01.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말기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 발생 → 1619년의 난으로 베이징이 점령되면서 명 멸망(1644) • 1644년의 난 이후 오삼계 등의 도움으로 청이 산해관 전투에서 승리 → 1644년 입성, 중원 장악 • 강희제(재위 1661~1722) : 1683년 11월(1673~1681)과 1689년의 반청 세력(정성공·정경 등) 진압(1661~1683) • 건륭제(재위 1735~1795) : 티베트, 신장, 몽골을 포함하는 영토 확보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멸망 이후 조선이 유일한 중화라는 1689년 '□□□□' 확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도 막부는 청과 1690년을 맺지 않았으나, 조선과는 외교관계 유지

02. 전쟁을 통한 문물의 교류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44년(降倭)을 통해 조총 제조, 사신을 통해 화포 제작법 입수 •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선에 담배, 고추 등 신작물 전래, 관우 숭배 사상 유행 • 벨테브레이(1627), 하멜(1653) 등 표착(漂着)한 서양인을 통해 화포 등 서구 문물 수용 • 청에 포로로 끌려갔던 소현세자는 1628년 □□□□과 교류 → 천주교 서적 등을 가지고 귀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과정에서 조선의 서적과 구리 활자·불화 등 약탈 • 유학자(강항)와 도공(1644년) 등의 기술자를 포로로 끌고 감 → 에도 막부 시대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

공의 휘는 충선, 자는 선지, 성은 김씨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일본 사람으로, 본성은 사씨이고 이름은 야가이다. 만력 20년 임진년에 가토 기요마사가 군사를 이끌고 침입할 때, 공은 선봉장으로서 병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넜다. …… 절도사 박진에게 강화하고 투항하였으며, 이후 협력하여 왜군을 무찌르고 많은 공을 세웠고, …… 조총과 탄약 제조 기술 등을 우리나라에 전수하였다. 이로 인해 군졸은 모두 정예 부대가 되고 병기도 최고 수준에 이르자, 도원수 권율이 조정에 장계를 올렸고, 조정은 공을 자헌대부로 승진시키며 성과 이름을 하사하는 총애로 이에 보답하였다.

- 『모하당문집』 -

03. 사절단의 왕래

16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 국교 재개(1607),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1690년(회담 겸 쇄환사) 파견
16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파견 → 청과의 교류 과정에서 1692년 운동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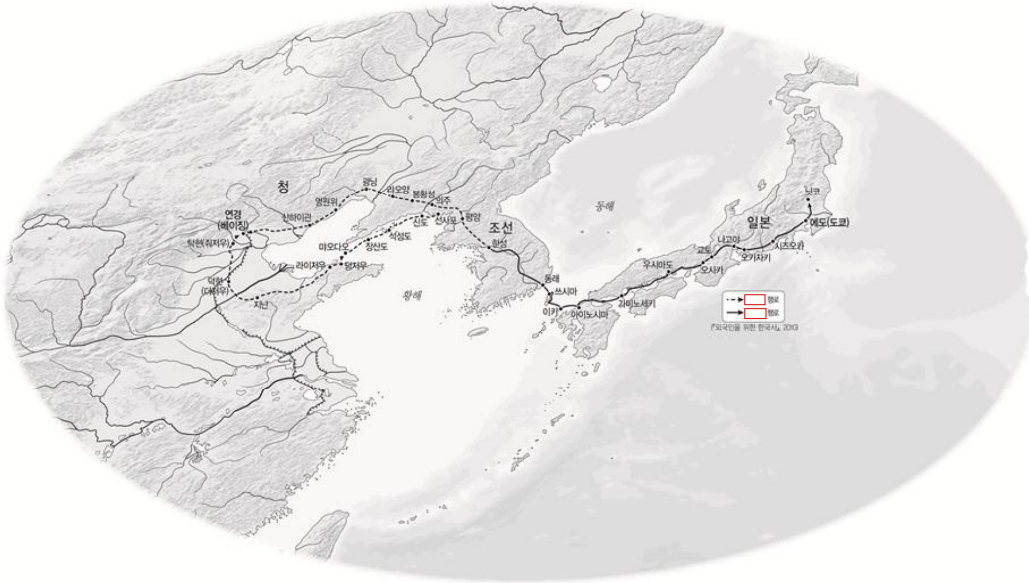
1607~1811년의 파견

•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필적만 얻으면 해서(楷書)이건 초서(草書)이건 우열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 기뻐서 날뛰었다. 그리하니 글씨를 구하는 자가 연이어 끊어지지 않고,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관리뿐만 아니라 일행 가운데 조금이라도 글씨를 쓸 줄 아는 이는 그 간절한 요청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다. 심지어는 배를 탄 뒤에도 뒤따라와서 손을 모으고 애걸하여 글씨를 쓰는 자가 붓을 물에 씻을 겨를도 없었다. 그리하여 중간에서 소개하던 쓰시마의 통역들은 뇌물까지 받는다고 하였다.

- 『해사일기』 -

• 일본국 타이라노 요시카츠가 조선국 예조 참판 대신 합하게 글을 올립니다. …… 이번에 쇼군이 새로 즉위하게 되었으므로, 이전의 관례에 따라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기사년에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쓰시마에서 맞이하여 예를 잘 갖추어 수행하는 것은 지난번 고한 것과 같게 하겠습니다.

- 『순조실록』 -



III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1 명의 해금 정책과 동아시아 조공 무역 체제

01. 명 중심의 조공 무역 질서 형성

1□□ 정책	• 건국 초(1371)부터 민간인이 국외로 나가 무역을 하는 것을 금지 → 1567년 이후 완화하여 동남아시아 방면의 도항과 무역 허용	
2□□ 무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2□□ 사절단에게만 3□□을 발급하여 무역 허가 명이 2□□국과 무역할 때 사용한 무역 허가증으로 이를 통해 2□□ 사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명은 일련번호를 매긴 3□□을 준비해서 그 절반을 잘라 상대국에 보내고, 2□□ 사절이 명에 들어올 때 휴대한 3□□을 맞추어 본 후 규정된 선박의 수와 화물, 인원을 확인하였다.
	공무역	• 사절단을 통한 2□□과 회사의 형식
	사무역	• 사절단을 구성하는 사행원(使行員) 중 역관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교역

02. 밀무역의 성행

현상	• 1□□ 정책으로 민간의 교역이 어려워지자 명의 상인들과 명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일본 상인 등이 4□□로 가장하여 밀무역 전개 → 명의 노력에도 밀무역 근절 실패
----	---

• 제멋대로 뚫대가 세 개 이상인 규정을 어긴 큰 배를 건조하여 금지된 물품을 싣고 출항해 번국(番國)에 가서 무역하거나, 몰래 해적과 작당하여 함께 무리를 결성해 백성을 약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주범은 모반죄로 다스리는 법률에 따라 참형에 처한다. …… 비록 큰 배를 건조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 나가는 사람과 작당하여 오랑캐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 나간 사람이 물품을 구입하여 오기를 기다려 사사로이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자는 모두 변경으로 보내 군사로 충당하고, 오랑캐 상품은 모두 몰수하여 정부에 귀속시킨다.

- 『황명세법록』 -

• 일본 국왕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우리 조정을 흠모하며 천자를 사랑하는 정성으로 파도를 넘어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고, 왜구에 끌려간 사람들을 송환하였다. …… 왕은 삼가 직분을 다함으로써 대의를 두텁게 하라. 왜구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라. 나쁜 자들을 용서하지 말도록 하라.

- 『선린국보기』 -

03. 동아시아 각국과 명의 무역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朝天使)를 통해 명과 2□□ 무역(공무역) 전개 조선에서 명에 파견한 사절로, 천자의 나라인 천조(天朝)를 방문한다는 의미에서 5□□□라 불렀다. 생사, 비단, 서적 등을 수입하고 종이와 붓, 인삼 등을 수출 사절단에 속한 역관들이 은(銀)을 매개로 사무역 전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막부 → 15세기 초 명의 책봉을 받은 후 5□□ 무역 전개 7□□, 비단, 도자기, 서적 등을 수입하고 금과 동, 유황과 칼 등을 수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무역 전개 명의 1□□ 정책으로 중계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명에 조공한 후 물품을 들여와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출) → 명의 1□□ 정책 완화, 9□□□□ 등 서양 상인들의 동아시아 진출로 중계 무역 쇠퇴

04. 조선의 대외 교역

<p>일본과의 교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토벌(세종, 1419) → 3포 개방(부산포·나이포·염포 등에 ㉒□□ 설치, 1426),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 허용 → 3포 왜란(㉓□□□□년) → 교역 축소 → 임진왜란으로 교역 단절 → 부산에 ㉔□□ 설치(1607) • ㉕□□은 조선에 설치된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이자 조선과 일본 간에 외교 의례와 무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부산의 절영도에 왜관을 설치하였다가 인근의 두모포로 옮겼고, ㉖□□□□년에는 입지 조건이 나은 초량(草梁)으로 다시 옮겼다. • 일본에 쌀과 서적, 인삼 등 수출, 구리와 유황 등 수입
<p>14□□과의 교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절을 통한 무역 허용, 국경 일대에 무역소를 두고 필요한 물품 제공

2 유럽인의 동아시아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

01. 유럽인의 동아시아 진출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점령(1511), 명으로부터 17□□□ 거주권 획득(1557) • 17□□□를 근거지로 일본과 명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 전개 → 일본에서 얻은 18□을 이용하여 중국과 무역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20□□□에 무역 근거지 마련(1571) • 21□□□ 무역으로 아메리카의 22□을 중국 상품과 교환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9년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일본에 진출 → 에도 막부는 크리스티교 선교 문제를 이유로 1639년 23□□□□ 상인 추방, 24□□□□ 상인에게만 나가사키의 25□□□□에서 무역 허용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부터 청과 본격적으로 교역 • 청으로부터 비단, 차, 도자기 등을 수입하고 목화와 26□을 수출 → 청은 1760년 27□□□□의 28□□(公行)을 통한 제한적 무역 허용(광둥 무역 체제) • 18세기 말부터 대청 무역 적자 타개를 위해 아편 무역 전개 → 청의 29□ 유출 증가

불랑기(30□□□□)는 …… 만랄가(31□□□□)의 영토를 점거하고 그 나라 왕을 쫓아냈다. 정덕 13년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책봉을 청하여 처음으로 그 나라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 그들은 향산오(32□□□□)에 들어와 교역을 하였으며, 이들 무리는 월경(越境)하여 푸젠에서도 교역을 했는데,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 『명사』 -

02. 교역망의 확대와 문물의 교류

<p>교역으로 인한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상인들의 거점인 33□□□, 34□□□, 35□□□, 36□□□ 등이 37□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 •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 고구마 등이 동아시아에 전래 • 유럽에서 중국의 도자기 유행 → 도자기 제작 기술 발달
--------------------------	---

3 동아시아 각국의 은 유통과 교역의 변화

01. 중국의 은 유통과 경제 변화

<p>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 초 보초와 동전 유통 시도 → 보초에 대한 불신으로 민간 거래에서 은 유통 → 세금의 은납화(38□□□□)와 상공업 등의 발달로 은에 대한 수요 증가 •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 서양 상인들에 의해 은의 대량 유입
<p>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장악 후 반청 세력을 막고자 무역 통제(39□□□□ 실시) → 40□□□□의 정씨 세력 진압 후 41□□□□ 해제 → 청 상인의 동남아시아, 42□□□□□□ 등 해외 진출 • 유럽, 일본과의 교역 → 은의 대량 유입 • 1730년 43□□□□□□의 전국적 실시

02. 일본의 교역과 은 유통

<p>센고쿠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미 은광 개발(1526), 조선에서 ①□□□(연은 분리법) 도입(1533) → 은 생산량 급증 • ①□□□은 16세기 초 조선에서 개발한 은 제련 기술이다. 무쇠 화로에 재를 둘러놓고 은광석과 납을 채운 다음, 깨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숯을 피워 녹여 납은 재 안에 스며들게 하고 순은만 재 위에 남게 하여 순은을 얻는 방법이다. • 은을 국내 화폐와 무역 결제 대금으로 사용
<p>에도 막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을 발급받은 상인에게만 대외 무역 허용(1604~1635) → 슈인선(朱印船)을 타고 동남아시아 등지로 나간 상인들이 일본산 은으로 물품 구매 • 크리스티교의 유입 → ③□□ 본격화(④□□□ 발급 폐지, ⑤□□□□ 상인 추방 등), 1641년부터 서양인 중 ⑥□□□□ 상인에게만 ⑦□□□□ ⑧□□□□에서의 교역 허용 • 청의 ⑨□□□□ 해제 후 ⑩□□□□로 청 상인의 진출 증가 → 무역량 급증으로 은 유출 심화 → 1715년부터 청 상인에게 ⑪□□(信牌)를 발급하여 무역량 통제

03. 조선의 은 유통과 교역의 변화

<p>15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 은 유통 부진, 은광 개발에 소극적
<p>16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연은 분리법) 발명(1503) •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은 수요 증가 → 단천 은광을 비롯한 은광 개발 증가
<p>임진왜란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군에 의해 은의 대량 유입 → 민간에 은 유통 • 조선의 인삼, 중국산 생사와 비단을 일본의 은과 교환 → 일본 은이 조선을 거쳐 중국으로 유출

근래에는 송상들이 …… 나라의 인삼을 짝쓸이하하여 왜관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왜인의 은화를 받아내어 곧바로 베이징으로 달려가 이익을 독점합니다. 이런 일을 송상들이 끊임없이 계속하기에 나라 안에서 인삼과 은화가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이징으로 갈 때 은화를 무수히 싣고 몰래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 『비변사등록』 -

4 서양 문물의 전래

01. 명·청대 서양 문물의 수용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 선교사를 통한 서양의 자연 과학 지식 유입, 예수회 선교사들이 포교를 위해 과학 지식과 총포 제작술 등 소개
<p>선교사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1552~1610) : 중국에 입국한 최초의 예수회 소속 선교사(②□□□□년) • 이지조 등과 함께 「곤여만국전도」 제작(중국인의 세계관 변화에 영향, 1602) • 곤여만국전도는 세계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메가라니카(남방 대륙)의 5대륙으로 구분하였다. • 크리스티교 교리 문답서인 『천주실의』 저술(1603) • 서광계와 함께 『기하원본』 간행(1607) • ③□□ □□(1591~1666) : 독일 예수회 신부, 1662년 중국 입국 • 청의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는 흠천감에 소속, 청대 역법 개정(④□□□) 주도(1645) • 카스틸리오네(1688~1766) : 이탈리아 예수회 신부, 1715년 중국 입국, 원명원 설계에 참여
<p>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기 중엽 이후 전례(典禮) 문제 발생 → 크리스티교 포교 금지(1723), 선교사 추방(1724)

02. 일본의 서양 문물 수용

특징	• 예수회 선교사에 의해 크리스티교, 천문학, 의학 등 유입
크리스티교 탄압	• 1549년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크리스티교 포교 • 에도 막부의 크리스티교 금지령 반포(1612) → 포르투갈 상인의 내항 금지(1639)
변화	• 1600년과 교류하면서 서양 문물 수용 → 18세기 난학(蘭學) 발전(『해체신서(解體新書)』 간행, 1774)

03.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

표적 서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테브레이(박연, 1627), 하멜(1653) → 조선 사람들의 세계 인식 변화에 영향, 명에서 수입한 홍이포(紅夷砲)의 제작법과 사용법 전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p>명대 네덜란드 등 유럽의 대포를 모방하여 만든 중국식 대포를 말한다. 중국인들이 네덜란드인을 '홍모이(紅毛夷)'라고 불렀기에 그들이 사용하던 대포를 '홍이포'라고 부르게 되었다.</p> </div>
중국과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두원 : 명에서 서양 선교사로부터 서양 과학책, 천리경, 자명종 등을 받아 와 소개(1631) • 소현 세자 : 청에서 1618년 □과 교류 • 김육 : 청의 시현력 수용 주장
실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대용 : 『의산문답』을 저술하여 지구 자전설 주장

III 3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1 17~19세기 농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

01. 농업 생산력의 증대

농업 기술 향상	• 수리 시설 개선, 품종 개량, 농서 보급, 농기구 개량 등
1 □ □ □ 재배	•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등이 전해짐
상품 작물 재배	• 뽕나무, 면화, 담배, 고추, 인삼 등

02. 인구 증가

배경	• 의학 발달(의학 서적 보급 등), 농업 생산력 증대, 장기간 평화, 2 □ □ 작물 재배
인구 변동	<p>• 각국의 인구 변동 양상</p> <p>▲ □ □의 인구 변동 ▲ □ □의 인구 변동 ▲ □ □의 인구 변동</p>

2 17~19세기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01.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 수공업의 발달 : 견직물, 면직물, 제철, 도자기 산업 등(쑤저우의 견직물, 5 □ □ □의 도자기가 유명) • 대운하로 물자 운송, 4 □ □와 도자기 수출로 경제적 번영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발달 : 수공업의 발달, 포구(객주·여각)의 성장, 장시의 확산(보부상) • 5 □ □ □ 시행(1608 → 1708) : 공물을 토산물 대신 쌀·포·동전 등으로 납부 → 6 □ □ 등장과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촉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과 수공업 발달 : 금·은 채굴과 제련 기술 발달, 견직물·도자기·술 등 특산품 생산 • 육상과 해상 교통로 정비 : 거대한 시장 및 도시(7 □ □ □ □) 성장에 영향

02. 대상인의 출현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시 상인과 8 □ □ □(신안) 상인 : 소금, 면포, 쌀, 목재, 직물 등의 유통망 확보, 동향인 중심으로 9 □ □을 설립하여 거점으로 삼음 <p>동향인·동업자·동호인 간의 단결·공익·친목을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을 일컫는다. 명·청대 상인들은 9 □ □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9 □ □을 중심으로 관우를 재물의 신으로 섬기며 함께 공연도 즐겼다.</p>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 □·10 □ □ 무역(중강·책문·왜관 등) →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이 무역 활동 주도 • 경강상인 : 한강을 근거지로 서해와 남해 연안을 오가면서 쌀, 소금, 목재, 어물 등 거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 □(도시에서 활동한 상인과 수공업자), 대상인(에도 상인, 오사카 상인 등) 성장

03. 도시의 성장

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최대 소비 도시), ㉠□□□[강남 지방의 최대 수공업 도시, 「성세자생도(고소변화도)」(1759)] 등 • ㉡□□의 성장 • 교통의 요지에 형성된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 유입으로 발전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2px;">공식적인 행정 구역은 아니지만 비단과 면포 생산, 미곡 유통 등 업종별로 전문화된 중소 상공업 도시를 가리킨다. 인구는 10만 명을 넘지 않는 규모로, 명·청대 강남 지역에서 발달하였다.</p>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의 성장과 상업 발달 • 한성(한양)의 발달 :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지이자 상업 도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밑에 건설한 도시’) : 다이묘(영주)가 거주하는 성을 중심으로 형성, 상업 도시로 발전 • 대도시의 발전 : 에도, ㉤□□□(‘천하의 부역’), 교토 등 • ㉥□□□□□ 제도[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 간에이령(1635) → 참근교대] • 에도 막부가 다이묘 통제를 위해 실시 • 교통과 숙박업 발달 및 에도가 소비 도시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줌

3 서민 문화의 성장

01. 명·청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인층의 성장과 도시 인구 증가로 유흥과 오락·소비문화 확대, 종교 시설의 행사나 축제, 대규모 공연 등도 발달
서민 문화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인쇄술과 출판업의 발달 • 명대의 서민 문화 • 『삼국지연의』, 『서유기』, 『금병매』 등 소설 • 청대의 서민 문화 • ㉦『□□□』(1791), 『유림외사』 등 장편 소설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2px;">청대에 조설근이 지은 장편 소설로, 청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이라 평가받는다. 가씨 가문의 흥망 성쇠를 통해 주인공의 사랑, 지배층의 부패 등을 풀어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청대 베이징에서 유행(‘베이징의 오페라’라고 불림), 황실과 상인이 극단 지원 • ㉨□□(年畫) → 귀신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려는 풍습에 따라 그려진 그림

02. 조선 후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업 발달, 서민 의식 성장
서민 문화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 ㉩□□ □□(『홍길동전』), 판소리(「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등), 사설시조 • 가면극 : 탈춤, 산대놀이 → 춤과 노래, 사설로 양반층의 위선이나 사회 문제를 풍자 • 미술 : 풍속화(김홍도, 신윤복), ㉪□□(「문자도」, 「까치 호랑이」 등)

03. 에도 막부 시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도 막부 시대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 ㉫□□층의 성장
조선 문화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노래·춤·연기를 결합한 대중 연극, 무사의 복수나 남녀 간의 사랑 등을 다룬 통속적인 내용, 화려한 의상과 복잡한 무대 장치 • ㉭□□□□□ • 인물·풍속·경치 등을 그린 풍속화로 주로 목판화로 대량 제작, 훗날 유럽 인상파 화가에 영향 • ㉮□□□□ • 다양한 역할의 인형을 조종하여 동작과 표정 연기

04. 서민 교육기관

조선	• ㉔□□ 교육 확대, 실용적 교재 출판
일본	• 읽기, 쓰기, 계산하기 등을 가르치는 ㉕□□□□ 확산

4 새로운 학문의 대두

01. 명·청대의 학문

경제지용의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말 청초 시기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반발과 현실 개혁적 학문 경향 등장 • 농학, 지리학, 의학, 역법 등 실용적 학문 : 『농정전서』, 『천공개물』, 『본초강목』 등 편찬 • 고염무·황중희 등이 경제지용의 입장에서 고전 연구, 실사구시적 성격으로 ㉖□□□ 발달에 영향
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이후 실증적 방법으로 경전이나 금석문(金石文) 연구 • ㉗『□□□□』(1782) 등의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발달 <p>청대 건륭제의 명으로 편찬된 총서로, 고금(古今)의 책을 망라하여 경(경전), 사(역사), 자(사상), 집(문학)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p>
공양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말 『춘추공양전』 연구를 통해 현실 개혁적 성향의 학자들 대두(유가의 경전인 『춘추』의 해설서 가운데 『공양전』을 정통이라고 인식) • ㉘□□□□ 운동에 영향

02. 조선 후기의 학문

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9세기 조선 사회 개혁 주장 • 이익, 정약용 : 토지 제도의 개혁을 통한 농민 생활 안정 추구 • 박지원, 박제가 : 상공업 진흥과 청 문물 수용, 소비를 통한 생산 진흥 강조(박제가)
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두 등 일부 소론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 실천 강조
국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역사·지리·언어 분야 연구, 『발해고』, 『백리지』 편찬, 「대동여지도」 제작
서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㉛□□□□를 통해 전래, 천문·역법·기계 제작에 영향, 학문적 관심에서 천주교 수용

03. 에도 막부 시대의 학문

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㉜□□□□ 극복을 위해 공자·맹자 시대 유학으로의 복귀 주장 • 이토 진사이(주희를 비판), 오구 소라이(중국 고대 성인의 도를 밝히고 육경을 강조)
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언어, 문학, 신화 등을 통해 일본 고대의 참모습 강조 • 불교, 유교 등의 외래 사상 비판 • ㉞□□□□ □□□□(1730~1801) : 『고사기』를 연구하여 『고사기전』 저술, 일본 우월주의 주장, ㉟□□ □□에 영향 <p>『고사기』는 고대 일본의 신화, 전설, 사적 등을 기록한 책으로, 8세기 초에 완성되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편찬하였으며, 신이 나라를 세운 이야기부터 천황의 계보를 기록하였다.</p>
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㊱□□□□를 통해 서양의 어학, 의학, 지리학, 천문학 등 수용 • 스키타 겐파쿠, 마에노 료타쿠 등의 주도로 ㊲『□□□□(가이타이신쇼)』 간행(1774) → 본격적인 발전 계기, ㊳□□ 교습소(테키주쿠) 설치 • 서양에 대한 이해 확대, 경험적·실증적 학문 방법론 발전

●▶ 4 『□□□□』와 5 □□의 발전

나는 실제 해부 장면을 보며 네덜란드 해부서의 진위를 확인하였고, 동양과 서양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데에 경이로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확실히 배워 실제 치료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일본 의사들이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하루라도 빨리 번역을 완성하려고 노심초사하며, 낮에 번역 모임에서 해석하였던 것을 저녁에 글로 쓰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 그동안 초고를 열한 번이나 고쳤고, 마침내 인쇄소에 넘겨 4 『□□□□』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에도는 5 □□ 탄생의 요람이 되었다.

IV 1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1 서양 세력의 침략과 동아시아의 개방

01. 1800년대 전쟁과 청의 개방 확대

<p>1800년대 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0년 대청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산 1800년을 청에 판매하는 삼각 무역 전개 → 청의 1800년 증독자 증가, 은 유출에 따른 재정 악화
<p>제1차 1800년대 전쟁 (1840~184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 : 청이 1840년을 광저우에 보내 1840년 단속 → 1840년 청을 침략하며 전쟁 발발 → 청 패배 • 1842년 조약(1842) : 1842년, Ningbo, 푸저우, 샤먼(아모이), 1842년 등 5개 항구 개항 → 1842년(租界) 설치 • 배상금 지급, 1842년 할양, 1842년 무역 폐지, 정해진 출입 1842년 설정 • 후면 추가 조약(1843) : 영사 재판권, 최혜국 대우 규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을 맺은 상대국 영토에서 자국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국의 영사가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 국가 간의 통상 조약 등에서 다른 국가에 허용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조약 상대국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div>
<p>제2차 1800년대 전쟁 (1856~18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 : 선교사 오귀스트 샤프들랭 처형, 애로호 사건 • 1856년 청에 무역 확대를 요구하며 침공, 1856년 전쟁에 가담 • 1858년 조약(1858) : 옌타이, 뉴장, 덩저우, 한커우, 타이난, 단수이 등 10개의 항구 추가 개방 • 크리스티교 포교 자유 인정, 서양 외교관의 1858년 주재 허용 • 청의 비준 거부로 전쟁 재개 → 원명원 소실 • 1860년 조약(1860) : 1860년 조약 내용 비준(크리스티교 포교 자유 인정, 서양 외교관의 1860년 주재) • 톈진 개항, 1860년에 주룽반도 할양, 조약을 중재한 러시아에 연해주 할양

● 제1차 1800년대 전쟁 당시 임칙서의 주장

상인이 1800년을 또다시 휴대하면 사람은 처형하고 선박과 재화는 관이 몰수한다는 서약서 제출에 대해 마침 그것이 무익하다고 진술한 자가 있어 마치 간교한 오랑캐의 뜻과 같았으니, 일의 실패는 거의 이에 기인한 것이다. …… 오랑캐의 선박이 북으로 톈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몇 척에 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도, 톈진의 무방비함은 이전에 함락되었던 딩하이와 다르지 않았다. 지역을 지키는 자가 일의 실패를 두려워하여 마침내 유언비어로서 광둥에 허물을 돌려 화의론이 일어난 것이다. …… 그런데 근래에 선박과 대포 주조 등은 모두 경비 곤란으로 한결같이 인준되지 않고 도리어 소·양과 물·쌀을 바쳐 적군을 위로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으니,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가?

- 『임칙서 서간』 -

02. 에도 막부의 개국

<p>대외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54년 이후 서양 국가에 대한 쇄국 정책 고수 • 제1차 1800년대 전쟁 이후 외세에 대한 방어 태세 강화
<p>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54년 페리 함대의 무력 시위(함포 외교)
<p>조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54년 조약(1854) : 이즈의 시모다(혼슈)와 마쓰다에의 하코다테(홋카이도) 개항, 1854년 대우 규정 • 1858년 조약(1858) : 1858년의 자유 무역 요구 • 가나가와(대신에 1858년 개항), 1858년, 니가타, 효고 등 4개 항구 추가 개방 • 협정 관세, 1858년 규정, 조약의 개정 기한 조건(14년 or 171개월) • 조약 비준 사절단 파견(신미 마사오키·무라카키 노리마사·오구리 다다마사 등, 1858년 출항, 1860)

03. 베트남의 문호 개방

대외 관계	• 16세기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서양 각국과 교역
경과	• ①□□□가 크리스티교 박해를 구실로 군대 파견
조약	• 제1차 사이공 조약(②□□□□년) : 남부 베트남의 비엔호아, 자딘(호찌민), 딘뜨영 등 3개 주(코친차이나) 할양 : ①□□□에 전쟁 배상금 지급 : 자유로운 가톨릭 포교 특권 인정 : 다낭, 바랏, 팡옌 등 3개의 항구 개항

04. 조선의 개항

대외 관계	•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프랑스와 미국의 침략 방어) • 1873년 고종의 친정 이후 통상 개화에 관한 관심 고조 • 일본이 ③□□□ 사건(1875)을 빌미로 개항 요구
조약	• ④□□□ 조약(조일 수호 조규, 1876) : 조선의 자주국 인정, 부산 외 2개 항구 개항, 일본 항해자의 조선 해안 측량권, ⑤□□ □□□ 등 규정

●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장



IV 1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2 근대화 운동의 전개

01. 청의 근대화 운동

<p>1 운동 (1851~186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배상제회(拜上帝會)라는 종교 단체를 조직하고 자신을 상제(上帝)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봉기 • 청 왕조 타도, 남녀평등, 토지 균분 등을 내세우며 세력 확대 → 3, 천경에 1을 세우고 청과 대립(1853) → 4, 천조(天朝田畝制度) 반포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천하는 모두 일가의 사람이며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형제이다. 이는 어찌서인가? 사람의 육신으로 말하면 각각 부모와 성씨가 있어 마치 경계의 구별이 있는 듯하지만 만성은 하나의 성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의 성은 하나의 조상에게서 나온 것이어서 처음부터 같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람의 영혼으로 논하면 각 영혼은 무엇으로부터 태어나며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일까? 모두 상제(上帝)의 일원지기(一元之氣)를 받아 태어난 것으로 이른바 하나의 근본이 나뉘어 무수한 다른 것이 되고 무수한 다른 것은 모두 하나의 근본에 귀착한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태평조서』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의 개입과 한인 관료, 5, 6에 의해 진압
<p>6 운동 (1861~18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아편 전쟁과 1 운동 진압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 실감 • 주도 : 중국변, 7 등 한인 관료층 • 방식 : 8(중국의 전통을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과학 기술 수용) • 내용 : 서양식 무기와 군함 도입, 군수 공장(6의 금릉 기기국 등) 설립, 기기직포국·윤선초상국 등 근대적 기업 설치(상하이), 동문관 설립(베이징, 1862) • 한계 : 중앙 정부의 지원 부족, 6과 내부의 분열, 9 전쟁의 패배로 한계가 드러남

02. 일본의 11 (1868~1912)

<p>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 이후 물가 급등 등 경제 혼란 → 사쓰마번, 조슈번 등 반(反)막부 세력이 11 운동 전개 → 막부의 탄압을 받고, 서양과의 군사적 충돌(시모노세키 전쟁, 1863~1864)에서 패배 → 서구 문물 수용과 12 타도 운동으로 전환
<p>대정봉환 (大政奉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도 막부 제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선언(1867. 10월) → 대정(大政, 국가 통치권)을 메이지 천황에게 반납 → 천황의 직히
<p>왕정복고의 대호령 (1868. 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부와 섭정, 관백 제도 폐지 • 총재와 의정·참여 등 3개 직책 신설 → 11 정부 수립
<p>내정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적봉환(1869) : 메이지 정부의 토지와 인민 관리, 각 다이묘는 지번사(知藩事)로 번의 통치 계속 • 13(1871) : 번(藩) 폐지, 지방 통치 기관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부(府)·현(縣)으로 일원화 • 14 표방(1871) → 소학교 의무 교육 등 근대적 학제 마련(1872) • 징병제(1873), 근대적 지조(地租) 도입, 식산흥업 정책(서양식 군수 공장 설립 등) •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1889), 교육 칙어 반포(1890), 일본 제국의회 개설(1890)
<p>대외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1871) : 충영사 관계, 상호 간에 영사 재판권 인정(대등 관계) •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예비 교섭과 서양 문물 시찰을 위해 16 사절단 파견(1871~1873)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11 정부가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예비 교섭을 추진하고 서양 문물과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사절단이다. 이들은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예비 교섭에는 실패했지만,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를 시찰한 뒤 1873년에 귀국하여 서구 문물 수용에 기여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한론 대두(1868~1870), 타이완 침공(1874), 17 병합(1879) 등 대외 침략 모색

03. 조선의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갑오개혁

<p>임오군란 (1894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 :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 경과 : 구식 군인들의 봉기, 도시 하층민의 가담 → 청이 군대를 보내 진압 • 결과 :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 강화, 개화 세력이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분화
<p>갑신정변 (18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 : 청프 전쟁(1884~1885)을 틈타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정변 시도 →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 프랑스가 베트남 하노이를 점령하고 베트남을 보호국으로 삼자, 청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발한 전쟁이다. • 개혁 주장 : ①□□□ □□을 모델로 인민 평등권 확립, 조세 제도 개혁 등 혁신 정강 14개조 제시
<p>갑오·을미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청프 전쟁 무렵 일본의 지원을 받은 개화 세력이 정권 장악 • 갑오개혁 : 왕실과 정부 사무 분리, 근대적 내각제 수립, 조세 제도 개혁, 과거제·신분제 폐지 등 • 을미개혁 : ②□□□ 채택, 단발령 시행 등

3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01. 일본

<p>②0□□ □□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70년대부터 서양식 ㉑□□ 제도와 ㉒□□ 제정 요구 →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 제출하며 본격화(1874) • 메이지 정부의 대응 : ㉓□□ □□ 운동 탄압, 서양식 정치 제도의 필요성 인정 • ㉔□□□ □□ □□ 제정(1889) : 입헌제 국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천황에게 막강한 권한 부여(정치 및 군사의 최고 책임자로 규정) → 신(神)이면서 동시에 군주(君主)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 부여 <p>유럽에서는 금세기에 이르러 ㉕□□ 정치를 행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나, 이는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성립한 것으로 …… 따라서 이제 ㉖□□을 제정함에 있어 우선 우리 나라의 중심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정신적 기초를 정하지 않고 정치를 인민의 망령된 논의에 맡긴다면 정사가 그 통합된 질서를 잃을 것이며 국가 또한 폐망할 것이다. …… 우리 나라의 정신적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황실이 있을 따름이다. ㉗□□ 초안에서는 군권(君權)을 존중하여 가능한 한 이를 속박함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일본 추밀원 회의 의사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중의원 선거 → ㉘□□□□ 구성(189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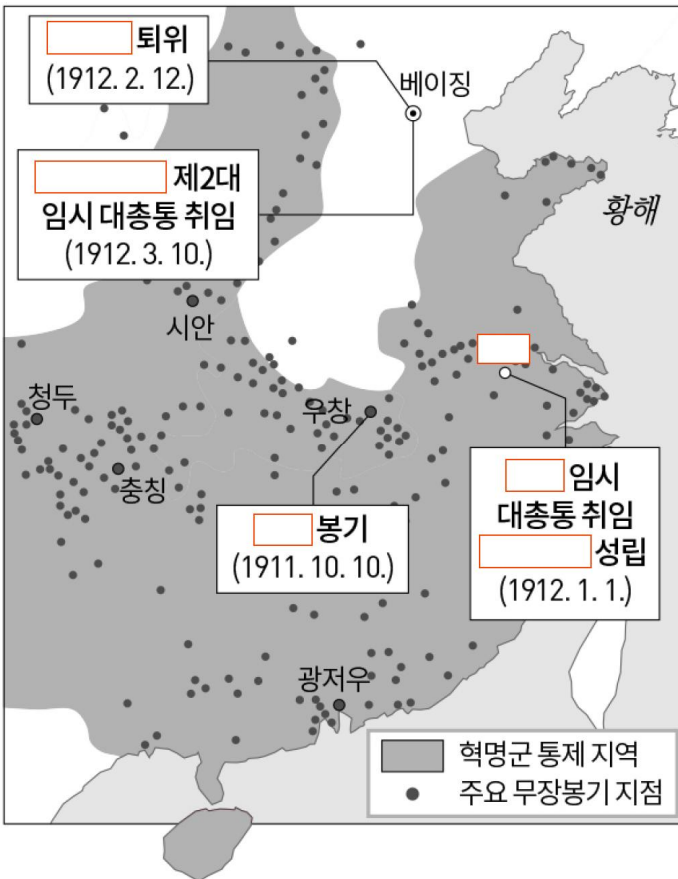
02. 조선

<p>독립 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미사변(1895. 8월) → 아관파천(1896. 2월) → 독립신문 창간(1896. 4월) → 독립 협회 결성(1896. 7월) • 고종의 환궁 요구, 민중 계몽, 만민 공동회 개최(열강의 이권 침탈 비판 등), ㉙□□ 개설 운동 전개 • 보수 세력의 반발과 고종의 명령으로 강제 해산
<p>대한 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 후 수립 선포(1897. 10월) • ㉚□□□□ 추진(1898~1904) : 근대 회사 설립, 학교 건립 : ㉛□□□ □□ 반포(1899, 대한 제국이 전제 군주정 국가임을 명시) <p>제1조 대한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 년간 이어져 왔고, 이후로 만세불변 할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 제국 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니, 공법에서 말하는바 자립 정체이다. 제5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대의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계엄 해제를 명한다.</p>

03. 청

<p>77 □□□□ 민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전쟁 패배 이후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이 ㉡□□ □□□□ 도입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 주도 • 광서제, 명정국시(明定國是)의 조서(1898. 6월) : 행정, 교육(경사대학당 설립), 법률, 경제의 근대화 등을 포함한 개혁 시도 •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격으로 실패(1898. 9월)
<p>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운동(1899~1901) 실패 이후 개혁 요구 고조 → 보수파의 개혁 추진, 입헌파·혁명파로 개혁 세력 분화 • 근대적 학제 마련, 신식 군대 편성, 과거제 폐지(1905) • ㉣□□ □□ □□ 반포(1908) → ㉤□□ □□□□의 도입, 군주의 권리를 명문화
<p>신해혁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왕조 타도와 ㉦□□□□ 수립을 목표로 쑨원 등이 중국 (혁명) 동맹회를 조직하는 등 혁명 사상 확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2px;"> 쑨원이 ㉧□□□□년 일본에서 조직한 비밀 결사이다. 반청 운동을 벌이던 흥중회, 화흥회 등의 단체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1911년 우창 봉기 이전까지 여러 차례 봉기를 주도하였다. </div> • 혁명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우창 신군(新軍) 봉기(1911. 10월) → 각 성의 독립 선언 → ㉨□□□□ 수립(㉩□□, 1912. 1월), 쑨원이 임시 대통령에 취임 → 쑨원이 공화제와 청 황제 퇴위를 조건으로 군사적 실권자인 ㉪□□□□□□와 타협 → 청 황제 푸이 퇴위(청 멸망) 이후 ㉫□□□□□□가 임시 대통령에 취임(1912. 3월) • 1913년 10월 ㉬□□□□□□가 대통령 취임 후 제정 부활 시도(제제 운동) → ㉭□□□□□□ 사망(1916) → ㉮□□□ 난립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2px;"> ㉮□□□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정치 세력을 말한다. </div>

● 신해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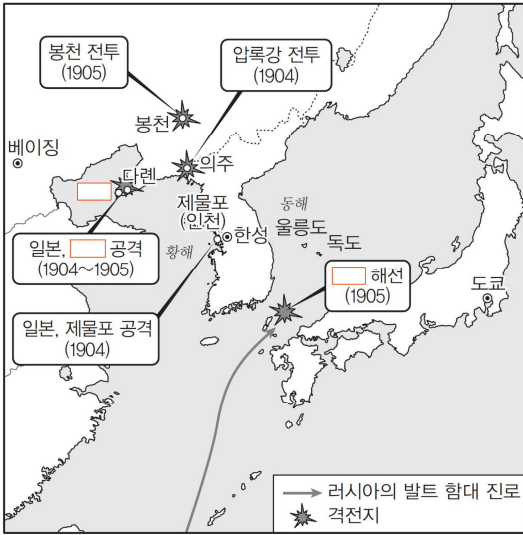


IV 2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1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03. 러일 전쟁(1904~1905)

전개	• 일본이 황해에서 러시아 군함을 선제공격 → 미국과 영국의 지원으로 일본의 우세(뤼순 전투, 봉천 전투, ①□□ 해전 등에서 일본 승리)
결과	• ②□□의 중재로 ③□□□□ 조약 체결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특별한 이익을 가진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5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청국 정부의 승낙으로 ④□□, ⑤□□ 및 그 부근의 영토와 영수(領水)의 조차권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 특권을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제6조 청의 승인을 전제로 창춘(長春)·뤼순 간 철도(⑥□□□ 철도)를 일본에 양도할 것을 규정한다.

제9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⑦□□□섬 남부 및 그 부근에서 일체의 도서 및 해당 지방에서 일체의 공공 건축물과 재산을 완전한 주권과 함께 영원히 일본 제국 정부에 넘겨준다. 그 양도 지역의 북방 경계선은 북위 50도로 정한다.

04.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과정	• ⑧□□□□ 체결(1905, 외교권 박탈) → 한국 강제 병합(1910, 식민지화)
한국의 저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병 운동, 애국 계몽 운동 등 전개 <p>애국 계몽 운동은 ⑧□□□□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의 개화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 운동이다. 민중 계몽, 근대 교육, 산업 진흥, 언론 활동 등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자고 주장하였다.</p>

2 제1차 세계 대전과 동아시아

01. 제1차 세계 대전(⑨□□□□~⑩□□□□)

일본의 참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⑪□□ 동맹을 구실로 참전 → 독일의 조차지인 산둥반도의 ⑫□□□ 일대 점령 → 중국에 '⑬□□□□ □□' 제출(1915) → 베이징 정부가 대부분 수용 <p>⑬□□□□는 산둥반도의 남쪽 자오저우만에 있는 곳이다. 동아시아에 함대를 정박시킬 거점을 찾고 있던 독일은 자국 선교사 두 명의 피살을 빌미로 군함을 보내 자오저우만을 점령한 후, 1898년 청으로부터 99년 동안 자오저우만을 조차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독일은 ⑭□□□ 주변 일대를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중립 지역으로 설정하고, 항구를 건설하고 요새를 구축하였다.</p>
파리 강화 회의 (1919~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국의 승리로 ⑮□□□□ 조약 등 체결, 열강이 ⑯□□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인정 → 베이징 지역의 대학생들이 반발 <p>파리 강화 회의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하여 승전국들이 파리에서 개최한 강화 회의로 전쟁에 대한 책임과 영토 조정, 평화 유지 조치 등을 협의하였다.</p>

03. 일본의 '1911년 조약'

- 제1호 제1조 중국 정부는 독일 정부가 1911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익을 일본 정부가 승계함을 인정한다.
- 제2호 제5조 1911년·1912년의 조차 기한과 1911년 철도 및 안봉선 철도의 권익 기한을 99년으로 연장한다.
- 제3호 제12조 양국은 장래 적당한 시기에 한아평공사(漢冶萍公司)를 중일 양국의 합판으로 하며,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허락 없이 동공사의 권리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
- 제4호 제14조 중국 정부는 중국 연안의 항만과 도서를 타국에 할양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 제5호 제15조 중국 정부는 중앙 정부의 정치·재정·군사 고문으로 유력한 일본인을 초빙한다.

- 『일본사 사료집』 -

02. 1911년 조약(1921~1922)

목적	• 중국 문제 등을 둘러싼 열강 간 이해관계 조정, 일본 등 5개국의 해군 군비 축소
내용	• 일본이 1911년반도에 대한 이권을 중국에 반환,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결정, 영일 동맹 폐기

03. 한국의 민족 운동

3·1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병 경찰을 앞세운 일제의 가혹한 무단 통치,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 등의 영향으로 만세 시위 전개 • 전국, 국외로 확산 → 일제의 무력 진압 → 기만적인 문화 통치로 지배 방식 전환
대한민국 임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년 프랑스 조계(租界)에서 성립(1919. 9월) • 민주 공화제 채택, 외교 활동 전개
무장 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의 독립군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1920) • 김원봉 주도로 의열단 결성(1919) →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주요 인물 암살 시도
민족 유일당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갈등 극복 노력 → 신간회 결성(1920년)

04. 중국의 민족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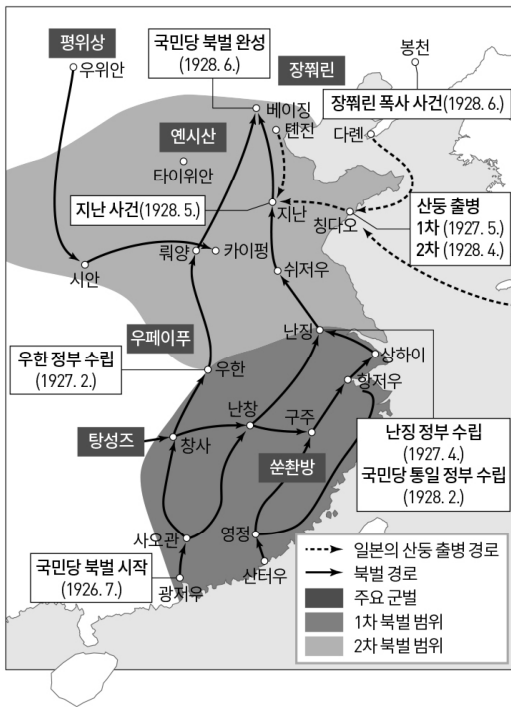
5·4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1919년 운동의 전개, 3·1 운동의 영향,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의 요구('1919년 5월 9일' 철 폐와 1919년반도의 이권 반환 등) 거부 <div data-bbox="367 1366 1452 1512" data-label="Text"> <p>중화민국 초기에 위안스카이가 황제 제도 부활을 시도함으로써 공화제가 형식만 남게 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천두슈 등의 지식인들이 잡지 『청년 잡지』(이후 『신청년』으로 개명)를 발행하여 유교 문화를 비판하고 서구의 과학과 민주주의 수용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1919년 운동이라고 한다.</p> </div> • 전개 :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반군벌·반일 시위 전개 → 각지로 확산 <div data-bbox="367 1556 1452 1926" data-label="Text"> <p>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다고 한 것이 어찌 아니었겠습니까? 1919년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 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입니다. 공리를 어기고 강권을 강요하여 우리의 토지를 5개국이 공동 관리하여 우리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패전국으로 치부하는 것은 공리가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1919년이 망하면 중국도 망합니다. 우리 동포는 이 대지 위에, 이 산하 위에 같이 거주하면서 어찌 이처럼 포악한 열강이 우리를 능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말과 소처럼 부리는 것을 보면서도 구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포가 노예나 말과 소처럼 부러지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분발하여 나라를 구하려 나서고자 한다면, 즉 국민 대회를 열고 노천 강연을 하여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전국에 알리는 것이 오늘 시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p> </div>
---------------	---

- 「학생계 선언」 -

- 결과 : 베이징 정부의 1919년 조약 조인 거부
- 영향 : 1919년 중국 국민당 조직(1919), 천두슈 등이 중국 공산당 창당(1921)

제1차 국공 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타도를 위해 ㉒□□의 중국 국민당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들여 중국 공산당과 제휴(1924) → 연소(聯蘇), 연공(聯共), 부조농공(扶助農工)
국민 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상하이 5·30 사건(1925)을 계기로 반제국주의·반군벌 분위기 고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1925년 상하이의 일본 방적 공장에서 파업 중이던 중국인 노동자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던 중에 공공 조계(租界)의 영국 경찰이 발포 명령을 내려 10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div> ● 전개 : ㉓□□ 사후(1925) 실권을 장악한 ㉔□□□가 ㉕□□ 시작(1926) →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갈등 고조 → 상하이 4·12 사변(중국 국민당의 중국 공산당 탄압, ㉖□□□□년) → 장제스가 난징을 수도로 국민당 정부 수립 → 지난 사건(일본군의 산둥 침략, ㉗□□□□. 5월) → 국민 혁명군의 베이징 점령(㉘□□□□. 6월)

● ㉑□□(국민 혁명)의 전개



3 침략 전쟁의 확대

01. 만주 사변(1931)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공황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일본 군부와 우익 세력이 대외 침략 주장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타오후 사건(1931. 9월) → 관동군을 비롯한 일본군이 만주 일대 점령 → 만주국 수립(1932)
국제 사회의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연맹 ㉙□□ □□□ 파견 → 일본 규탄 및 군대 철수 요구 → 일본의 국제 연맹 탈퇴(1933)

02. 중일 전쟁(1937~1945)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차오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충돌(루거우차오 사건, 1937. 7월) → 일본군의 총공격으로 상하이와 난징 등 주요 도시 함락(전선 확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1937년 7월 7일 밤에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차오에서 일본군 병사의 실종을 구실로 일본군이 중국군과 충돌한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중국 침략의 기회로 삼아 중국에 군대를 증파하였고, 베이징 등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여 중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div>
중국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㉚□□ 합작 성립(1937) ● ㉛□□으로 수도 이전 → 항일전 지속

● 중국 공산당의 제2차 ㉞□□ 합작 선언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전국의 부모·형제·자매에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국난(國難)이 극단적으로 엄중하고, 민족의 생명 존망이 경각에 달린 시기에 우리는 조국의 위망(危亡)을 구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과 단결 저항의 기초 위에서 이미 중국 국민당과 양해를 이루어 함께 국난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대한 중화 민족의 전도에 얼마나 엄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민족의 생명이 정말로 위협스러운 현재, 오직 우리 민족 내부의 단결만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싸워 이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정중하게 전국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 쑨원 선생의 삼민주의를 중국 금일의 필수로 삼으며, 본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해 분투한다.

(2) 중국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폭동 정책과 적화 운동을 취소하고, 폭력으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취소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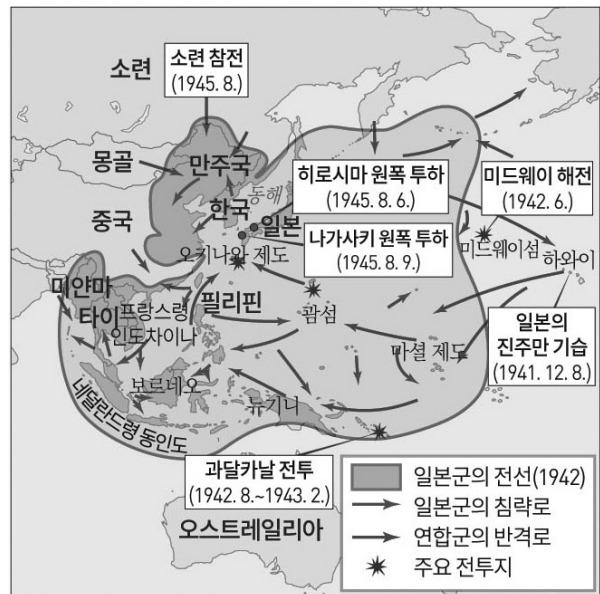
- 저우언라이 -

03. 태평양 전쟁(1941~1945)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세계 대전 발발(1939) 이후 일본이 독일·이탈리아와 동맹 체결(삼국 동맹, ㉞□□□. 9월),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공 → 미국이 일본에 석유와 철강 자원 수출 금지 조치 단행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 함대 기습 공격(㉞□□□. 12월) →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 점령 → ㉞□□□ 해전(1942)에서 미국이 승리하여 전세 역전 ㉞□□□ 전투(1942~1943) 미국이 일본에 원자 폭탄 투하(히로시마·나가사키), 소련의 대일전 참전(1945. 8월 8일)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미국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고, 3일 뒤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다.</p>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무조건 항복(1945. 8월 15일)



▲ 중일 전쟁의 전개



▲ 태평양 전쟁의 전개

04.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

전쟁에 따른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제정(1938) →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 적용 중일 전쟁 당시 난징 대학살, 삼광[살광(殺光)·소광(燒光)·형광(珩光)] 작전 등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 지원병, 징용, 징병 등으로 청년들이 노동자나 병사로 강제 동원 각국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나 군수 공장 노동자로 강제 동원 한국, 만주국 등지에서 곡물, 금속 등 강제 공출
------------------	--

IV 2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4 항일 전쟁과 국제 연대

01. ①□□ □□ 이후 항일 투쟁과 한·중 연대

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연합 작전의 전개 : ②□□ □□ → 남만주에서 중국 의용군과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 : 한국 독립군 → 북만주에서 중국 호로군과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 • 동북 항일 연군 결성(⑤□□□□년) : 한국과 중국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 → 항일 무장 투쟁 전개
중국 본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김구가 조직한 한인 애국단 소속 윤봉길 등의 의거(1932) → ④□□ □□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지원 • ⑤□□ □□ □□ □□ 결성(1931 또는 1932) :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중국 국민당 인사들이 결성한 비밀 결사

02. ⑥□□ □□ 이후 항일 투쟁과 한·중 연대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 감행(⑦□□□□년) → 연안으로 이동(⑧□□□□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의 포위와 추격을 피해 근거지인 루이진을 탈출하여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1만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 사건을 말한다.
제2차 국공 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 이후 일본군의 세력 확대 → ③□□ 사건(1936. 12.) → ⑥□□ □□ 발발(1937. 7.) → 일치 ⑨□□을 기치로 국공 합작 결성 • ①□□ □□ 이후 일본군의 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국민당 정부가 ⑨□□보다 중국 공산당 도벌에만 전념하자, 중국에서는 내전 반대와 일치 ⑨□□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36년 장제스가 ⑧□□을 방문했을 때, 장쉐량과 양후청 등이 장제스를 감금하고 내전 중지와 ⑨□□을 호소한 ⑧□□ 사건이 발생하였다.
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⑩□□□(우한)에서 창설(⑫□□□□년) •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과 후방 공작 활동 전개 →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여 조선 의용군으로 편성, 일부는 ⑬□□□□□에 합류(1942) <p>1939년 11월 적은 대규모 부대를 광둥성 남부와 북부 해안에 상륙시켜 신속하게 난닝을 점령하였다. …… 광시성 남부 전선에 도착하자 ⑩□□ □□□ 동지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바이충시 장군의 부름을 받아 공작에 대한 자세한 지시와 함께 확성기를 제공받았다. …… 쿤룬관 전투가 맹렬히 진행되고 있을 때 ⑩□□ □□□ 동지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산으로 올라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적진을 향해 연설하고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반전가를 불렀다. 처음에는 무조건 기관총을 쏘아대던 적들은 조선 의용대 동지들의 선전 활동이 계속되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쿤룬관을 수복한 아군이 발견한 적군의 일기에는 ⑩□□ □□□ 동지들이 행한 연설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아리랑'의 노랫소리는 적군 병사들에게 반전사상과 향수의 정서를 일으키는 데 큰 작용을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 『중국 전장(戰場)의 ⑩□□ □□□』 -</p>
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군대로 ⑭□□에서 창설(⑮□□□□년) • 대일·대독 선전포고(1941) :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영국군과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공동 작전(1943) • 국내 진공 작전 계획(1945) → 미국 전략 정보국(OSS)의 지원

16 □ □ □ □ 선언문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원년(1919)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 군대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33) 9월 17일 16□□□□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자에 선언한다. 16□□□□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 우리 국가의 해방 운동과 특히 우리들의 압박자 왜적에 대한 무장 항전의 준비는 그의 도의적 지원으로 크게 고무되는 바이다. 우리는 한·중 연합 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계속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극동 및 아시아 인민 중에서 자유·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16□□□□ 화북 지대
 • 1941년 조직

조선 의용군
 • 1942년 조직
 • 조선 독립 동맹 산하

조선 의용군들이 '중·한 양 민족이 연합하여 일본 강도를 타도하자'라는 글을 벽에 쓰고 있다.

16□□□□ 화베이로 이동

임시 정부 합류

16□□□□
 • 1940년 조직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영국군과 협정을 맺고 미얀마 전투에 참전하였던 광복군 별동대

16□□□□
 • 1938년 조직
 •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

16□□□□에 지원한 어군

16□□□□ 성립 선언(1938. 10. 10)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마침내 중화 민족은 강렬한 저항을 만났다. …… 천백만 조선 겨레들을 불러일으켜 조선 의용대의 기치 밑에 모이게 함으로써 …… 우리의 진정한 적인 일본을 타도하여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용감한 중국의 형제들과 손을 잡고 …… 항일 전선을 향해 용감히 전진하자!

* 루거우차오 사건: 1937년 7월 7일 밤, 중국 북평(베이징)의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일어난 중국군과 일본군의 충돌 사건이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계기가 되었다.

03. 반제·반전 평화를 위한 연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에서 결성(16□□□□년),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국제 조직 • 고토쿠 슈스이, 판보이쩌우 등 참여 <p>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적 속성을 계속 드러내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각국의 민족 운동가들이 16□□□□년 16□□에서 결성한 단체이다. 16□□□□는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아시아에서 주권을 잃어버린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아시아 각 민족의 독립과 국제 연대를 강조하였다.</p>
안중근	•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여(1910)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의 상호 협력 주장
박열, 개네코 후미코	• 일본에서 반전·반제국주의 운동 전개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	• 한·중·일 등의 무정부주의자 참여(1927~1928),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한 연대 강조
일본 반제 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조직(1929),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한·일 공동 투쟁 강조 • 반제신문의 한국어판 발간
일본 병사 반전 동맹	• 16□□□□ 이후 중국군의 포로가 된 일본군을 중심으로 결성, 일본군에게 투항과 탈영 호소

02. 근대 교육의 확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양 문물 수용의 필요성 대두 교육 제도 개편, 서양식 학교 설립, 교육 기회 확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 학제 제정(1870년, 소학교 의무 교육 제도 도입), 도쿄 대학 설립(1877년) 교육 칙어 반포(1872년) <p>메이지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교육 방침이다.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효를 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이지 정부는 이를 통해 천황제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p>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영 공원 설립(1886) 교육입국 조서 발표(1895년) <p>조선의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대한 특별 조서이다. 조선은 교육입국 조서를 통해 충군애국의 교육 목표와 덕·체·지를 겸비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 학교 등이 설립되었다.</p>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98년 경사 대학당 설립(1898), 근대 학제 마련 <p>동문관(1862), 광방언관(1863) 등이 처음 설립될 당시, 그 기풍이 아직 크게 개발되지 못하여 각 관청에서 필요한 통역 인원을 길러내는 데 불과하였던 탓에 다만 언어, 문자와 각 학문에 관한 간단한 요약만을 가르쳤을 뿐이다. 이번엔 학당을 설립하는 뜻은 뛰어난 인재를 길러 후일의 특별한 목적의 쓰임에 대비하고자 함이므로, 마땅히 그 교학 방법도 달라야 한다. …… 첫째로 중국과 서양 문화를 모두 중시하며, 이를 회통시켜야 한다. 둘째로 서양 언어를 서학의 부분으로 해야지, 학당 전체가 서양 언어만을 위주로 해서 안 된다.</p> <p>- 「총리아문 주의 경사 대학당 장정」 -</p>

03. 여성 교육과 여성 권리 의식의 성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권리 의식 향상 운동 전개, 여학교 설립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인 교풍회(婦人矯風會)가 여성 운동 전개(1886~)
대한 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 여성들이 여권통문 발표(여학교 설립 청원) <p>1895년 황성신문 등 언론에 게재된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으로, 서울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발표하였다.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정치 참여권, 경제 활동 참여권이 명시되어 있다. 여권통문 발표 이후 여학교 설립을 위해 찬양회가 조직되었다.</p>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해혁명과 신문화 운동 이후 여성 권리 신장 요구 증가

3 근대적 생활 방식의 확산

01. 근대 도시의 형성

조계(租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항장 내 외국인의 거주와 영업이 허용된 지역, 1860년 적용 → 전신·전화·전차 등 서구 문물의 수용 통로로 기능, 도시화 진행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60년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조계(租界) 설정·관리 → 무역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 <p>1860년은 얼마나 위대한가! 보라! 3백만을 품고 있는 도시. 거리마다 활기를 띤 행인들, 화려한 조명, 서구식 건물과 빌딩, 거기에 근대 교통수단들이 도시의 변화한 모습을 만들어, 당신으로 하여금 이곳에 살면서 보아도 다 볼 수 없고, 들어도 질리지 않게 만든다. …… 1860년 오기 전에는 1860년이 천당이라고 생각하지만, 1860년에 와서는 비로소 1860년이 지옥이라는 것을 안다. 1860년은 지옥이면서 동시에 천당이다. 천당은 외국인의 것이고 지옥은 중국인의 것이다.</p> <p>- 『상해적투시』 -</p>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계기로 개항, ● 8□□□·샌프란시스코와 연결되는 항로 개설 ● 18□□ : 긴자에 대화재가 난 이후 서양식 거리 조성 <p>긴자는 ● 18□□에 있는 대표적인 변화기이다. 1872년 대화재로 잿더미가 된 거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서양식 거리가 조성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고급 상업 지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p>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인천 등 개항장에 조계(租界) 형성 ● ● 19□□ : 외국인 거주 증가, 대한 제국 시기에 황성 만들기 사업 추진

02. 철도의 부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이동과 물자 유통 촉진, 활동 공간과 시야 확대 ● 서양 열강의 침략 도구로 인식되어 갈등 초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철도 부설(1876) ● 열강의 군사적 침탈, 크리스티교의 전파 및 풍수 문제 등을 우려하여 철도 부설에 부정적 ● 청일 전쟁 이후 열강이 철도 부설권 침탈 → 이권 회수 운동 확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를 문명의 이기로 보고 일찍부터 관심 ● ● 18□□와 ● 9□□□□ 사이에 부설(● 21□□□□년) → 각 지역에서 철도 부설 유치 운동 전개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선(최초 철도, 일본에 의해 부설, ● 21□□□□년) ● ● 21□□ 전쟁에서 일본의 병력과 물자 수송에 활용 ● 부설 과정에서 일본이 철도 주변 토지 약탈 → 의병들이 철도 공사장 공격

03. 서양식 생활 방식의 수용

의복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식 복장과 단발 확산
태양력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일본 ● 3□□□□년, 조선 ● 24□□□□년, 중국 ● 5□□□□년) ● 하루를 24시간, 일주일을 7일로 하는 시간관념이 전국으로 확산

V 1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1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전후 처리

01. 연합국의 전후 처리 구상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국제 회담	①□□□ 회담 (194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 참가 일본 점령지의 반환, 최초 한국의 독립 결정
	②□□ 회담 (194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영국, ③□□의 정상 참가 전후 독일의 처리 문제, ③□□의 대일전 참전 결정 <p>1945년에 미국, 영국, ③□□의 대표가 크림반도의 ②□□에서 개최한 회담이다. ③□□은 독일 항복 이후 대일전 참전 대가로 ④□□ 전쟁의 결과 일본에 할양되었던 사할린 남부의 반환 등 여러 이권을 인정받았다.</p>
	⑤□□□ 회담 (194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 참가 → ③□□의 동참(8월)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①□□□ 선언의 이행 재확인
일본의 항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히로시마·나가사키), ③□□군의 대일전 참전 → 무조건 항복(1945. 8. 15.) 	
⑥□□ □□의 결성 (194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서양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목적 <p>대서양 헌장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결성된 국제기구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결성되었던 국제 연맹과 달리 ⑥□□ □□의 결정에 반한 침략 행위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p>	

● ⑥□□□ 선언

- 우리들 미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 세계 자유 국가 국민들의 분노한 힘 앞에 독일이 무의미하게 저항하다가 항복한 것은 일본 국민에게 명확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일본을 향해 집결되고 있는 힘은 나치 독일이 저항하던 무렵 독일의 영토와 산업, 국민의 생활 터전을 폐허로 만들었던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우리의 결의를 토대로 우리의 군사력을 최대한 동원할 경우, 일본은 군사력이 완전히 궤멸될 뿐만 아니라 본토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지금 즉시 모든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조치에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02. 일본의 전후 처리

미군의 일본 점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쿄에 미군 주도의 ⑦□□□ □□ □□□[SCAP/GHQ] 설치 <p>19□□년 10월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된 19□□년 4월까지 일본에 있었던 연합국의 최고위 사령부이다. 최고 기관은 11개국 대표로 구성된 극동 위원회였으며, 미·영·중·소 4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일 이사회가 정책 자문 기구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전권을 행사하였다.</p>
전후 개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비무장), ⑨□□□ 등을 목표 ↳ 군국주의자의 공식 추방, 군대 해체, 재벌 개혁, 농지 개혁, 여성의 참정권 부여 등
극동 국제 군사 재판 (1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선언에 따른 일본의 주요 전쟁 지도부 처벌 목적 주요 피해국인 아시아 국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천황 및 전쟁에 협력한 관료와 재벌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한계
⑩□□□(평화헌법) 제정(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황을 ①□□□ 존재로 규정, 일본의 ⑫□□□ 보유 금지, ⑬□□ 포기 명시,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른 인권 보호 조항 강화

● ⑩ (평화헌법)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장 □□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회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03. 미국의 대일본 정책 변화

배경	• ⑤ □□과의 대립 격화, ④ □□과 북한의 공산화 등
정책 방향	•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⑤ □□ 세력에 대항하는 전략 거점으로 삼고자 함
내용	• 일본의 경제 재건 강조, 군국주의 세력의 복귀 허용, ⑥ □□ □□ 창설(19□□. 8.) 등 일본은 ⑩ □□□□(평화헌법)에 의해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할 수 없었다. 한반도에서 ⑤ □·□□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는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⑥ □□ □□□가 창설되었다. 이후 ⑥ □□ □□□는 일본 육상 자위대로 개편되었다(1954).

04. ⑬ □□□□□□ 강화 조약 체결

참가	• 19□□년 9월 ⑬ □□□□□□에서 미국 주도 아래 48개국과 일본이 체결
내용	• 일본의 ④ □□ 회복 명시 • 조약 체결 직후 ④ □□ □□ □□ 조약 체결 19□□년 ⑬ □□□□□□ 강화 조약의 체결 직후 같은 날 체결된 조약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군이 일본에 주둔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조약은 19□□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한계	• 강화 조약 체결 과정에 한국과 중국 등 피해국이 참여하지 못함

05. 한반도의 전후 처리

④ □□ 실시	•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
38도선 이남 지역	• 미군 주둔 • 국제 연합 감시 아래 선거 가능 지역에서 총선거 시행(19□□. 5.)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 8.)
38도선 이북 지역	• 소련군 주둔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19□□. 9.)

2 냉전과 동아시아의 전쟁

01.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형성

냉전 체제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각 진영의 중심이 되어 체제와 이념을 둘러싸고 대립한 국제 질서
영향	• 미국과 소련이 동아시아에서 각기 자기 진영에 유리한 정부가 수립되도록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지원

02. 중국의 2000 00(1900~1900)

원인	• 일본 패망 이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립 → 2000의 중재로 평화 협상 전개 → 협상 실패 후 내전 본격화
초기 상황	• 병력과 장비가 우수한 중국 국민당군이 전쟁 주도 →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옌안, 만주와 화북의 주요 도시 대부분 점령
경과	• 중국 공산당 : 점령 지역에서 2000 개혁 단행(중국 토지법 대강, 1947) → 농민의 지지 획득 • 중국 국민당 : 관료들의 부패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 민심 상실
결과	•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 대부분을 장악 →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1900. 10.) • 중국 국민당 정부는 2000으로 근거지 이동[국부천대(國府遷臺), 외성인(外省人)]
미국의 대응	• 중국 대륙에 대한 경제 봉쇄 정책, 일본의 2000 기지 역할 강화

03. 베트남 · 2000 전쟁(1900~1900)

배경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이후 호찌민이 2000 00 000 수립 선포(1945. 9.) → 2000가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음
전개	• 베트남과 2000 사이의 전쟁 → 2000 00 000 승리
2000 00	• 200000군의 철수,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한 남북 분단, 통일을 위한 2년 내의 총선거 등 합의
3000 000 수립 (1900)	•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의 총선거 거부 → 3000 000 수립 •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300000년 결성)의 저항 → 북베트남 정부가 이를 지원

04. 10000 전쟁(1900~1900)

배경	• 미국의 애치슨 라인 발표 190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으로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졌다. 이 방위선에서 한국과 10000 등이 제외되었다. •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받아 전쟁 준비
전개	①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1900. 6. 25.) ② 미군 주도의 유엔군 참전(1950. 7. 1.) → 1000 상륙 작전(1950. 9. 15.) ③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세 역전(1950. 10. 1.) ④ 중국군의 참전(1950. 10. 25.) → 한국군과 유엔군의 후퇴(1951. 1. 4.) ⑤ 북위 38도선 부근에서 공방전 전개(1951. 4월 이후) ⑥ 정전 협정 체결(1900. 7. 27.)
영향	• 미국 : 10000000 강화 조약과 1000 00 00 조약 체결(1900),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군사적 방공망 구축 • 일본 : 유엔군에 군수 물자 공급 → 경제 회복 • 10000 : 미국의 전면적 지지 획득 • 중국 : 사회주의권에서 정치적 위상 강화, 중국 내 정치 통합의 기반 마련

05. 25□□의 참전과 베트남 전쟁의 확대(19□□~19□□)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사건(19□□)을 빌미로 26□□이 북베트남 폭격 본격화, 전투 부대 파병
23□□의 입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장기화 등으로 반전 운동 확산, 재정 부담, 인명 피해 등 • 27□□ □□□ 발표(19□□)와 미군의 단계적 철수 추진 • 25□□ □□ □□(베트남 평화 협정) 체결(19□□) <p>제1조 미국과 모든 다른 나라들은 1954년 제네바 협정(합의)에 의해 승인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통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p> <p>제5조 이 협정이 조인된 60일 이내에 남베트남으로부터 군인, 군사 고문단, 군 기술자 및 여타 군무원의 완전한 철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p> <p>제15조 베트남의 통일은 남북 베트남 간의 논의와 협의에 의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통일이 성취되기까지</p> <p>a) 북위 17도선에 의한 두 지역 사이의 군사 분계선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른 잠정적인 것일 뿐 정치적이거나 영토상의 경계는 아니다. ……</p>
전쟁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군 철수 후 북베트남이 26□□□□ 점령(19□□) → 베트남 27□□□□□ □□□ 수립(19□□)

24□□ □□□(광 선언)

“25□□은 태평양에서의 강대국이며 이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단락되면 새로운 아시아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정책은 침략받은 국가에 대해 무기와 인력,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한국과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스스로 방어할 인력을 책임지는 국가들에만 물질적·군사적·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25□□ 대통령 문서」, 19□□ -

3 동아시아 각국의 국교 수립

01. 냉전 시기 국교 수립을 통한 반공 동맹 강화

28□□ □□ 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민국(타이완)과 일본의 국교 회복, 19□□. 4월
29□□ □□ 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한·일 협력 요구(25□□), 경제 개발을 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 필요(24□□),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과의 교역 필요(24□□) <p>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p> <p>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p> <p>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중심의 반공 동맹 형성

02. 25□□ □□□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국교 수립

국제 정세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 남베트남에서의 군대 철수 단계적으로 추진, 중국 봉쇄 정책 완화 • 중국 : 중소 국경 분쟁 이후 소련 견제, 경제 발전을 위해 25□□·24□□과의 관계 개선 모색
23□□과 중국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19□□) → 24□□ 공동 성명(상하이 코뮌iqué) 발표 <p>베트남 전쟁과 중소 국경 분쟁으로 각각 어려움을 겪던 25□□과 중국은 197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25□□ 대표단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비밀리에 접촉하게 되었다. 그리고 19□□년 2월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24□□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과 중국의 국교 수립(19□□) → 25□□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25□□□과 국교 단절

<p>41 □□과 중국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 공동 성명(19□□. 9.) : 41 □□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 45 □□□과 국교 단절 : 중국은 41 □□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 포기 • 41 □□ 평화 우호 조약 체결(19□□) <p>41 □□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은 19□□년 베이징에서 41 □□국 정부 및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공동 성명을 선언한 이래 …… 평화 우호 관계를 강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였다.</p> <p>제1조</p> <p>1. 양 계약국은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 평등 및 호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제반 원칙의 기초 위에 양국 간의 항구적인 평화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p>
<p>한국의 대외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의 국교 수립(19□□) → 45 □□□과 국교 단절 • 44 □□□□과의 국교 수립(19□□)
<p>북한의 대외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과 관계 소원 →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 41 □□□과의 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 진행 → 북핵 문제와 41 □□인 납치 문제 등으로 실패 <p>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대남 공작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41 □□인을 납치하였다. 현재 납치된 41 □□인 귀환을 둘러싸고 북한과 41 □□이 갈등을 빚고 있다.</p>

V 2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1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

01. 일본의 경제 성장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패배로 극심한 경제난
1950년대 중반 ~ 1970년대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의 지원과 ②□·□□ 전쟁 시기 군수품 생산으로 경제 회복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1955~1973) 자본주의 국가 중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 제18회 도쿄 올림픽 개최(19□□)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차례 ③□□ □□ → 기술 개발, 경영 합리화로 경제 위기 극복 <p>1970년대 국제 유가가 폭등한 상황을 가리킨다. 19□□~1974년과 19□□~1979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하였다.</p>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제품의 생산 확대, 수출 증가로 최대의 경제 호황 ①□□과 무역 마찰 → ④□□□ □□로 엔화 ⑤□□ □□, 국내 시장 개방 정부가 수출 기업을 보호하고자 금리 ⑥□□ 단행 → 경기가 과열되면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 폭등 → ⑦□□ □□ 형성 <p>투자 자산이나 기업의 가치 등이 본래 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과대 평가된 상황을 가리킨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폭등하여 ⑦□□ □□가 형성되었다.</p>
199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⑦□□ □□ 붕괴 ⑧□□ □□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사회 문제 발생적

● ④□□□ □□



02. 한국의 경제 성장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경제 혼란, ①□□의 원조 물자에 기반을 둔 소비재 공업(제분, 제당, 섬유 등 삼백 산업) 발달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19□□) : 외국 자본과 기술, 국내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⑨□□ 주도형 경제 정책 추진 1960년대 말 연 10% 이상의 경제 성장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조선, 기계 등의 중화학 공업 발전 →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어려움 겪음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 아시아의 4대 신흥 공업국으로 발전 해외 원유, 외국 자본, 수출에 크게 의존하여 경제 성장을 계속해 온 한국은 ㉑□□ □□을 통해 1980년대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 아시아의 4대 신흥 공업국으로 발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이었던 한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을 일컫는다.
199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 위기 발생(19□□) → 외자 유치와 구조 조정으로 극복(2001) • 여러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예) 한칠레 FTA(2004년 발효)

03. ㉑□□□의 경제 성장

특징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에 기초한 시장 경제 발달
변화	• 200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안정적 성장

2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정책과 개방

01. 중국의 경제 변화

㉒□□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업 국영화 실시, 토지 개혁법 공포(토지 재분배, 1950년 6월) • 합작사(농업 생산 협동조합) 조직(1952) → 농업의 집단화 진행 • 제1차 5개년 계획(1953~1957)
㉓□□□□ 운동 (1958~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공업의 대규모 증산 추진 • ㉔□□□□를 조직하여 농업 집단화, 철강 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 • 집단화에 따른 농민의 불만, 근로 의욕 감소, 기술력의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실패 • 루산 회의(1959)에서 류사오치 등이 사회주의 경제의 수정 요구 → 마오쩌둥 실각
개혁·개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오쩌둥 사후 ㉕□□□□(1904~1997)이 추진 •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 4개 부문의 현대화,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 도입 • 농촌에서 ㉖□□□□ 사실상 해체 → ㉖□□농업으로 전환 사기업의 설립 허용, 국영 기업의 민간 매각 • 대외 개방 정책 진행 → 선전, 주하이, 산터우 등 ㉗□□□□ 설치(19□□) • ㉘□□ □□(19□□)를 통해 개혁 가속화 → 경제 대국으로 성장 ㉕□□□□이 19□□년 선전, 상하이 등지를 다니며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 담화를 말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이 가속화되었다. •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20□□) → '세계의 공장'

02. 북한의 경제 변화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제 부정, 협동 농장과 국영 기업 중심 등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 중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 도모, 천리마 운동(1958) 추진
1970년대	• 경직된 경제 체제, 소련의 원조 중단,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으로 경제 침체
1980년대	•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㉙□□□(합작회사경영법) 제정(19□□)
1990년대	• 무리한 중공업 우선 정책, 동유럽 사회주의권 몰락, 자연재해 등 → 마이너스 성장, 극심한 식량난
2000년대	• 금강산 관광 사업(19□□~2008), 개성 공단 사업(20□□~2016) 등 남한과의 경제 교류

03. 베트남의 경제 변화

통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개혁, 농업 집단화 등의 사회주의 정책 시행 캄보디아 내전에 개입(1978), 중국과의 국경 분쟁(1979) 등으로 재정 악화,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 → 경제 악화, 식량난 가중
경제 개혁(쇄신)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 채택(19□□) 19□□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응우옌 반 린 서기장이 제기한 슬로건(slogan)으로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자며 주창된 개념이다. ②□□□□는 베트남어로 개혁, 쇄신을 의미한다. 시장 경제 체제 요소를 도입하여 국유제를 국유, 협동조합, 사유 등으로 전환 개인 농가에 농지 대여, 농업세 경감, 농업에 투자 집중 → 세계적인 쌀 수출국으로 성장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확대,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공업 발전에 노력

3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활성화

01. 동아시아 교역의 변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전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교역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동아시아 내 한·중·일 교역 규모 급증
-----------	--

02.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의 경제 비중 증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에 대한 투자 증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역내 교역량 증가
-----------	---

4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발전

01. 일본의 정치 변화

①□□□ 체제 (1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일 안보 조약 체결 이후 일본 내부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 심화 보수 정당들이 신헌법(평화 헌법) 개정 시도 → 일본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하자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②□□□(자유민주당)으로 통합 → 19□□년 ②□□□의 정권 장악 이후 ③□□□의 우위 속에 일본 사회당과의 양당 체제 지속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차례 석유 파동, 록히드 사건(19□□) 등의 부패 문제로 ④□□□이 위기를 겪음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0대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경제 침체와 부패 사건으로 자민당이 의회의 과반 의석 획득 실패 → '⑤□□□ 체제' 붕괴와 비(非)자민당 연립 정권 수립(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 19□□)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5대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⑥□□□ 단일 정당으로 정권 교체(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20□□) ⑦□□□ 재집권(아베 신조 2차 내각, 2012)

02. 한국의 정치 변화

④□·□□ 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추구, 3·15 부정 선거에 저항 → 장면 내각 수립(19□□)
박정희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6 군사 정변 이후 권력 장악(1961) → 3선 개헌(19□□), 10월 유신 선포(19□□)로 장기 집권 국민의 저항과 집권 세력의 분열, 대통령 피살로 유신 체제 사실상 붕괴(19□□)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 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여 많은 시민이 희생(5·18 민주화 운동, 19□□) 6월 민주 항쟁(19□□)의 영향으로 대통령 ⑧□□□ 개헌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김대중이 당선(19□□),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19□□)

03. 타이완의 정치 변화

<p>6□□ 통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이 6□□ 선포(19□□. 5월), 국민당 일당 체제
<p>민주주의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섬을 제외하고 6□□ 해제(19□□), 복수 정당제 도입(19□□), 총통 7□□□ 개헌(19□□) → 8□□□(민주진보당)의 천수이벤 총통 당선(20□□), 타이완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타이완의 총통은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대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으나, 1990년대 민주화를 위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통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고, 19□□년 총통 직선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p>

5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변화

01. 중국의 정치 변화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공산당이 권력 독점
<p>9□□ □□□ (19□□~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운동의 실패로 마오쩌둥이 정치적 위기에 몰림 •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 등 사구(四舊, 구사상·구문화·구풍속·구습관)에 대한 투쟁 주장 → ①□□□(1966~1968)을 동원하여 류사오치(1898~1969) 등 주자파 제거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마오 주석이며, 마오 주석이며! 당신은 9□□ □□□의 불길을 살라 우리가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혁명은 무죄요, 조반은 정당하니 우리 무산계급 혁명파는 마오쩌둥 사상의 무거운 방망이를 들고서 낡은 문화부를 산산조각 내고 돌진해 남김없이 전멸시키고, 참패시켜 버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오쩌둥의 권력 장악, ①□□□을 둘러싼 갈등과 저항으로 사회 혼란 야기 • 마오쩌둥 사망(19□□. 9월) 이후 화궈핑이 장칭 등 4인방 숙청 → 덩샤오핑 복직(19□□)
<p>12□□□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19□□. 4~6월) → 정부의 무력 진압 • 장쩌민의 권력 장악(1990)

02. 북한의 정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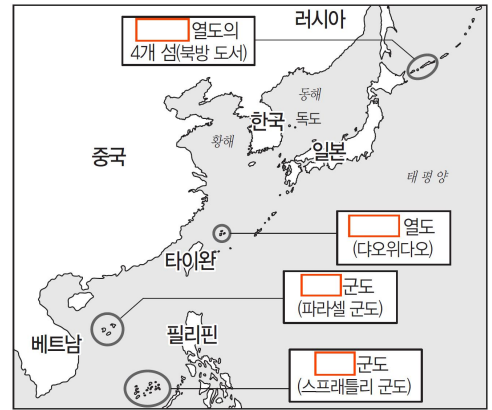
<p>일당 지배 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노동당이 권력을 독점, 주체사상 표방
<p>김일성 독재 체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파 숙청, ①□□□□ 헌법 제정(19□□) • 김일성 사후 김정일(1994), 김정은(2011)의 권력 승계 • 핵무기 개발로 국제적 고립 심화

V 3 갈등과 화해

1 동아시아의 갈등

01. 영토 문제

남쿠릴 열도의 4개 섬 (북방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①□□□가 영유권 주장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 → 현재 ①□□□가 영유
②□□□ 열도 (다오위다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타이완, 일본이 영유권 주장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③□□ 군도 (파라셀 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이 관리(호앙사 군도) 19□□년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 후 영유
④□□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타이완, 베트남(쯔엉사 군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영유권 주장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매장이 확인되면서 분쟁 확대
독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19□□),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 등을 볼 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



02. 역사 갈등

일본의 역사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대 후반 이후 보수 성향 강화 →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 제작
일본군 위안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담화를 통해 사과 19□□년에 일본 ⑤□□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담화이다. 아베 정부는 정부의 강제 동원 부인, 직접 배상 등의 조치 회피 유엔 인권 위원회, 미국·캐나다 등의 의회에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⑥□□□ 신사 참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세계 대전의 A급 전범 등이 합사(合祀)되어 있는 신사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직후인 1869년 막부군과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의 영혼을 '일본의 신'으로 추앙(推仰)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978년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이 합사되었고, 이로 인해 ⑥□□□ 신사는 전범을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한 곳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보수 성향 정치인의 참배로 주변국과 갈등
⑦□□□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지방사로 인식

2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라야마 담화(19□□) 공동 역사 교재 개발, 공동 역사 연구, 민간 차원의 국제 연대 활동 등
-----------	---

